

15일 Market Index			
↓ 코스피	4090.59	↑ 코스닥	938.83
	(-76.57)		(+1.49)
↓ 금리	3.000	↓ 환율	1473.35
	(-0.093)		(-0.35)

정용진, 美 ‘AI 수출전략’ 들고오나… 물류시스템 혁신 기대

〈신세계그룹 회장〉

‘AI 유통’ 청사진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 설계자
美 과학정책실장과 단독 면담

양국 AI 협력 확대, 기술 도입엔
정부차원 대출 등 파격혜택 제공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미국 백악관 핵심 인사들과 만나며 글로벌 네트워크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를 만나 인공지능(AI)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AI 수출 전략’이 국내 유통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 회장은 현지시각으로 12일 저녁 J.D 벤스 부통령과 만찬에 앞서 백악관을 찾아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정책실장과 단독 면담을 갖고 미국 정부의 AI 전략과 연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유통 선진화를 위한 첨단 기술 도입에 관심을 표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로, 현재 미국 상무부가 추진 중인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America AI Exports Program)’의 설계자다.



韓-라오스, 고용허가제 인력송출 양해각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포싸이 싸이나선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통문 시술식 라오스 국가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의 기술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핵심 대외 전략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최적화 반도체와 서버 등 하드웨어부터 클라우드 인프라, 파운데이션 모델(LLM), 사이버 보안 체계까지를

하나의 ‘풀스택(Full-Stack)’ 패키지로 묶어 동맹국에 수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2025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한-미 기술번역 MOU’를 체결하며 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판매를 넘어 미국의 AI 기술 표준을 동맹국에 이식함으로써 중국 등 경쟁국의 기술 영향력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도입 기업에는 미 연방 정부 차원의 직접 대출, 투자 보증, 기술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최근 신세계그룹 계열사 G마켓도 알리바바가 보유한 AI 기술과 협력에 나섰다. 이는 신세계그룹이 자체 기술 개발보다 검증된 외부 기술을 수혈하는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을 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쟁사인 쿠팡이 지난 10년 간 수조원을 들여 자체 물류 알고리즘을 내재화하며 ‘우리는 미국의 기술 기업’이라고 천명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신세계가 미국 정부라는 강력한 우군을 등에 업는다면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를 동시에 혁신해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정 회장이 관심을 표한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이 실제 도입될 경우 신세계그룹 차원 물류망에 AI를 적용해 배송 및 재고 효율을 높이는 ‘물류 시스템 고도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마트 등이 산지로부터 신선식품을 들여올 때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라이싱(Pricing)’ 기술의 접목, 이커머스 사업 부문에서 고객이 검색하거나 찾아본 상품 기록을 바탕으로 AI가 최적의 맞춤형 상품을 제안하는 ‘개인화 상품 추천’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 전망된다.

〈2면에 계속〉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한화, 상업선·군함 美 조선 투트랙 완성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이어
오스탈 지분 확보, 최대주주 올라
“美 조선시장 전체 연결통로 확보”

한화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호주 오스탈사 지분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미국 상업 조선 시장과 해군 함정 시장이라는 두 축을 모두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상업선과 군함은 조달 체계와 규제가 크게 달라 한 기업이 두 시장에 동시에 진입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 만큼, 이번 조치가 한화의 미국 조선·방산 공급망 내 입지를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최근 한화그룹의 오스탈 지분 최대 19.9% 인수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3월 9.91%를 취득한 지 9개월 만의 추가 확보다. 앞서 미국 정부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검토를 통해 한화의 지분 확대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



한화그룹이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한 오스탈의 미국 모빌 조선소의 전경. /오스탈 홈페이지

는다고 결론 내렸다. 호주와 미국이 모두 승인한 만큼 한화는 기존 최대주주인 타타랑벤처스(19.28%)를 넘어 사실상 오스탈의 최대주주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해외 기업이 미 해군 조달 프로그램과 직접 연계된 조선소의 주요 지분을 확보하는 사례는 흔치 않아, 이번 승인은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조선업체로 미국 앨라배마주 모바일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오스탈

USA’를 운영하면서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LCS), 고속수송함(EPF), 잠수함 모듈 등 핵심 프로그램을 수행해 온 기업이다. 미국 내 소형 수상함·군수지원함 시장 점유율 40~60%를 차지하는 강자로 오스탈 USA는 미국 기업으로 분류돼 미 정부 조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한화가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조달 자격이나 기존 프로그램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 해군이 개량형 EPF 등 후속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한화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한화는 이미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국 상업선·연안 운송 시장과 연결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오스탈 지분 확대로 해군 함정 분야까지 확보되면서 한화는 상업 조선과 방산 조선을 모두 아우르는 ‘투트랙 구조’를 갖춘 국내 최초 기업이 됐다.

〈3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롯데호텔앤리조트, 美 뉴욕호텔 부지 인수

건물 이어 7000억원 부지 매입
임차료 인상부담 등 해소될 듯

롯데호텔앤리조트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랜드마크인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의 부지를 약 7000억원에 매입했다. 10년전 호텔 건물을 인수한 데 이어 토지 소유권까지 확보하며 완전한 주인으로 거듭나게 됐다.

롯데호텔앤리조트(이하롯데호텔)는 뉴욕 대교구가 보유하고 있던 롯데뉴욕팰리스 호텔 부지를 4억9000만 달러(한화 약 7000억원)에 인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롯데호텔은 2015년 뉴욕 최초의 5성급 호텔인 ‘더 뉴욕 팰리스 호텔’을 인수해 운영해 왔으나, 당시 계약은 건물만 매입하고 땅은 뉴욕 대교구로부터 임차하는 구조였다.

이번 토지 인수는 임차료 상승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부지는 25년마다 임차료를 갱신하는 조건이었는데, 최근 뉴욕 지가 상승에 따라 갱신 시점 도래 시 막대한 임차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롯데호텔 측은 장기간의 협상 끝에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회사 측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인수 비용이 향후 발생할 누적 임차료보다 저렴해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리스부채가 줄어들면서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 건전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인수 자금은 보유 자산의 유동화와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맨해튼 미드타운 핵심 입지에 위치한 만큼 향후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롯데호텔은 이번 부지 인수를 계기로 북미 시장 내 브랜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위탁경영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이번 부지 인수는 브랜드 가치 제고와 글로벌 사업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 호텔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조국혁신당 “조은석 내란특검 ‘사법부 불기소’ 깊은 유감” /사진 뉴시스
▲여연 부원장에 장예찬…“장동혁 지도부 지키는 일에 물불 가리지 않겠다”

▲‘친명’ 강득구, 최고위원 출마…“당정대 간 조율자 역할할 것”
▲국방부 “특수본, 오늘부터 12·3 비상계엄 수사 개시”

▲與 “국힘, ‘웰빙 필버·농성’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 적극 협력하라”
▲국힘 “고용 연장, 양질 일자리부터 늘려야…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고려아연, 美에 10조 투자… 영풍 “경영권 방어용” 문제 제기

‘경영권 분쟁’ 새 국면

고려아연, 美와 합작법인 설립하고 10조 규모 제련소 건설 투자 결정
美, 고려아연 지분 10% 보유할 듯
영풍 “국산 광물의 수출종말 초래”

고려아연과 영풍·MBK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은 최근 최윤범 회장이 회사 자금을 우회적으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고려아연의 미국 10조원 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기술 유출 등의 우려를 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측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왜곡과 짜깁기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공격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미국 측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10조원 규모의 제련소를 건설하는 투자 여부를 결정했다. 투자 금액 중 미국 국방부 등이 2조~3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나서 미국 측과의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



장형진 영풍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되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미국이 고려아연을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면 경영권 분쟁도 현 최대주주인 고려아연 측에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

실제 미국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면 기존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생긴다.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단순 계산 시 영풍 측은 39.70%에서 35.73%로, 최윤범 회장은 19.11%에서 17.20%로 각각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영풍 측은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 지분에 투자하는 것은 ‘경영권 방어용 백기사’ 구조를 만들려는 포석”이라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10%)을 미국 정부에 내어주는 것은 의결권을 확보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해 줄 백기사를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온산제련소에서 생산하는 전략 광물은 대한민국 경제 안보를 지키는 핵심 자산 중 하나”라며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던 물량을 미국 현지 생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내산 광물의 수출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구축은 한국과 미국의 전략 광물 분야 공급망 강화 일환이라며 중요한 사업 협력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제련소를 통해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전략 광물의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영풍은 지난 14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청호컴넷 투자금 회수와 사익 실현을 위해 고려아연 회사 자금 200억원을 우회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영풍은 “해당 자금 흐름은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이며, 자금 사용의 적정성과 배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왜곡과 짜깁기 됐다”고 항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고려아연 주주에 오를 경우 경영권 분쟁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영풍 측은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성호 기자 ysw@metroseoul.co.kr

>> 1면 ‘정용진, 美 AI 수출…’서 계속

롯데, AI혁신 진행중 신세계·롯데의 전략 AI 쇼핑시대 새 기회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물류 고도화부터 신선식품 가격 책정,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등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경쟁사인 롯데그룹은 이미 AI 혁신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의 강력한 의지 아래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판단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를 전사에 도입하며 유통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 유통군은 지난 8월 ‘제1회 AI 컨퍼런스’를 열고 쇼핑, 상품기획, 운영, 경영지원 등 4대 핵심 분야에 자율형 AI를 적용하는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 비전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 ‘라일락(LaiLA C)’ 센터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롯데는 그룹 통합 AI 플랫폼 ‘아이멤버’를 업무 전반에 활용하는 한편, 롯데마트의 신선식품 품질 관리와 세븐일레븐의 경영지원 챗봇 등 실무 영역에서도 AI 내재화를 가속화하며 쇼핑 1번지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검색 쇼핑시대의 승자
쿠팡과 네이버 었다면
AI쇼핑, 새로운 장 열릴 것
신세계·롯데 기회 잡을수도”

전문가들은 신세계와 롯데의 전략이 AI 쇼핑 시대 전환기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AI 도입 자체가 목적이 아닌, 명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과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AI는 쇼핑의 근본적인 고객 여정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기술로, 소비자의 검색 비용을 0원으로 만드는 시대를 열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검색 쇼핑시대의 승자가 쿠팡과 네이버였다면, AI 쇼핑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경쟁의 장이 열린 것”이라며 “신세계와 롯데 등 전통 유통 기업들이 외부 AI 기술과의 동맹 등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AI가 소비자의 의도를 너무 정교하게 파악할 때 느끼는 불쾌한 골짜기를 극복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고객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기술 도입의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실행할 시스템과 인프라, 사람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고객 행위 분석과 예측, 배송 루트 및 창고 최적화 등 유통의 각 분야마다 요구되는 모델과 데이터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치밀한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손종국 기자

이마트, 신세계푸드 상장폐지 전 지분 공개매수

20% 높은 가격, 주당 4만8120원
내년 1월 5일까지 총 22일간 진행

이마트가 자회사인 신세계푸드의 잔여 지분 전량을 공개매수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한다.

이마트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신세계푸드 주식 공개매수의 건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지분 55.47%를 보유하고 있다.

공개매수 가격은 1주당 4만8120원이

다. 이는 공개매수 개시일 직전 영업일인 12일 종가(4만100원) 대비 20% 높은 수준이다. 공개매수 기간은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총 22일간 진행된다.

이마트는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유통주식 전량을 취득, 신세계푸드를 100% 완전 자회사로 만든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자발적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신세계푸드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소액주주들에게 시장가 대비 높은 가

격에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간 신세계푸드는 낮은 거래량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정책 기조에 맞춰 모자(母子) 기업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경영 효율성 강화도 주요 목적이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를 단일화

해 신속하고 과감한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장 유지 비용 절감은 물론, 실적 변동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사업 재편과 시너지 창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수는 주주 가치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종국 기자 handbell@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 ‘관망세’ 국면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 중심 올라”

지난달 서울 집값이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10·15 대책으로 거래와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졌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전월(1.19%) 대비 상승폭은 0.42%포인트(p) 축소됐다.

서울은 월별로 6월 0.95%에서 6·27 대책 이후 7월 0.75%, 8월 0.45%로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9월 0.58%, 10월 1.19%로 두달 연속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 10·15 대책으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7, 8월보다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시장참여

자의 관망세가 나타나며 매수문의와 거래가 줄었지만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와 선포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에서 송파구(2.10%)는 가락·신천동 재건축 추진단지, 동작구(1.46%)는 본·사당동 역세권, 양천구(1.24%)는 목·신정동 중소형 규모, 강동구(1.16%)는 고덕·암사동 대단지, 영등포구(1.06%)는 신길·영등포동 위주로 집값이 뛰었다.

강북에서는 용산구(1.37%)가 이촌·도원동, 성동구(1.37%)는 행당·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집값이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 주택종합 매매가격 역시 0.45% 올라 전월(0.60%)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비수도권은 0.04% 올라 전월 보합(0.00%)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기재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원천 금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국유재산을 감평가보다 싸게 파는 ‘헐값 매각’이 원천 금지된다. 또 공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에는 국회 논의가 선행되도록 하는 법·제도의 준비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5년간 16조 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수입 부족분을 메우고 민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법정 최저금액인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처분한 사례가 늘면서 헐값 매각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의 전면 중단을 지시한 이후 기재부가 한 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300억 원 이상 규모의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50억 원 이상의 매각 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도마 위… 재고용 검토 목소리도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정부·여당, 노사입장 조율 나서
야당, 일률적인 고용연장 제도
“우선 양질의 일자리부터 늘려야”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연장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사 입장을 조율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에 우려하며 정치권이 할 일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고용 연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부터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정년연장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에 관계되는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속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위상 의원 등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 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장 고민해야 하는 두 가지 중 첫째는 정책의 수용성”이라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거부감 없이 국민속으로 스며들어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다”라고 했다.

이어 “둘째는 어떤 방향 정하고, 한쪽만 바라본다면 쉬운 일 것”이라며 “그러나 정책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 한쪽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다른 한쪽에서 늘 역효과와 부작용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 데 어려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고용연장 문제가 바로 그렇게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

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지금 여당 그리고 정부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고용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이렇게 정책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 청년들 중에서도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과 아직 가지지 못한 청년, 그리고 아직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직전에 막연하게 그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의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모든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해 ‘찬성하는가, 찬성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법적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의 확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법적 정년을 확실히 늘리고, 기존 임금, 고용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 근로자 1명이 될 때 청년근로자 최대 1.5명까지 감소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연장과 함께 기업이 선별적으로 재고용을 결정하고 정년연장 대상자에 한해 임금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가 강성 귀족 노조의 반발로 좌초된 현실을 보면 이러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다수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며 “일본 역시 20년의 시행 끝에 고령자 고용 형태의 중심이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 형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을 65세로 최단 2036년과 최장 2041년 사이에 완성하는 연장하는 세 가지 안을 노측과 사측에 전달하고 최종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유동성 부족에 손해 감수… 재납입 등 전략 필요 “주거비 마련해야”… 퇴직연금 중도 인출 증가

노령연금 조기 수급 증가

1년 마다 6%씩 감액… 최대 30% 차이
지급연기 등 손실 보전 전략 세워야

은퇴 시기와 국민연금 지급 시기의 불일치로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조기 연금은 은퇴 후 소득 공백을 극복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노후가 길어질수록 정상연금 대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 조기 연금 중단,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활용 등 연금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7월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5년 전인 2020년 7월의 65만명과 비교해 5년 만에 약 54% 증가했다. 지난 2024년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법적 정년이 시작된 만큼, 조기 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출범과 함께 도입된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된다. 올해 법적 정년을 맞은 1965년생(만 64세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을 예시로 들면, 월 지급액을 30% 감액하고 59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시까지 지급을 보장한다.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면 노후가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급을 1년 앞당긴다면 76세(만 65세 수급 개시 기준), 지급을 5년 앞당긴다면 72세에 정상연금에 총 지급액이 역전된다. 월 지급액 차이가 최대 30%



조기 은퇴로 예정보다 빨리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다.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에 달하는 만큼, 연금을 일찍 받을수록 그 차액도 커진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 노령연금 신청 시 미래에 지급액 역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을 견디지 못한 중장년층의 조기 노령연금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중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응답자는 58.5%였다. 특히 은퇴가 임박한 50~59세 구간에서는 62.3%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꼽아, 모든 세대 가운데 국민연금의 노후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은퇴를 앞둔 세대의 높은 국민연금 의존도는 소득 공백 발생 시 조기 연금 수령으로 이어진다. 노후 소득 대부분을 국민연금에 의존해야 하는데도, 은퇴 직후 맞닥뜨린 유동성 부족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앞당기게 되는 것.

특히 점차 빨라지는 은퇴도 문제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

르면 지난해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퇴직한 나이(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떠난 시기)는 49.4세다. 2020년과 같고, 2010년의 53세와 비교해서는 3년 이상 짧아졌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 극복을 위해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근로자는 법적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자리를 떠나고 있다.

예금·적금, 증권 상품 등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은퇴를 맞이하게 된다면 조기 노령 연금 수령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유동성 부족으로 조기 노령연금을 받게 됐지만 향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납입’ 제도와 ‘임의납입’ 제도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기·재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아직 법정 국민연금 지급 연령은 도래하지 않은 가입자가 대상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납입한 기간에 따라 추후 받게 될 보험료를 다시 늘릴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 납입 대상이 아닌 60~64세의 ‘임의가입’과 유사하다.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소득도 충분하다면 향후 연금소득 극대화를 위해 ‘임의가입’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임의가입은 만 65세 이전까지 임의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납입액에 따라 추후 지급되는 연금액도 커진다. 또한 임의가입 기간은 납입 기간으로도 인정되는 만큼, 연금 지급 기준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가입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 통계 발표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직장인 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 및 금액이 모두 전년대비 늘어난 가운데 인출 사유의 대부분은 주택매입·전월세 등 주거비 마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43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9% 증가했다.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이며, 증가율은 계속 두 자릿수대를 유지 중이다.

오스탈 신형 플랫폼 등 한화기술 적용 전망

>> 1면 ‘한화 상업선·군함’서 계속

미국 조선시장은 상업·물류 수요와 국방 조달 수요가 철저히 분리돼 운영되기 때문에, 두 영역을 모두 확보했다는 점 자체가 한화의 향후 사업 확장성을 크게 넓혀주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 협력 측면에서도 협업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화는 합정용 방산전자, EO·IR(전자광학·적외선) 센서, 자율화 기술, 통합전투체계 등 고급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은 자동화·운용 효율화를 중심으로 합정 현대화를 추진하는 흐름에 있어, 오스탈의 신형 플랫폼 개발이나 EPF 개량형 프로그래머서 한화 기술이 적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인 확정급여형(DB) 비중이 49.7%로 가장 컸다. 또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26.8%)과 개인형 퇴직연금(IRP·23.1%)이 그 뒤를 이었다.

퇴직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전년대보다 4.3% 증가한 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출 금액은 3조 원으로 12.1% 늘었다. 인출 사유는 주거비 마련이 82.0%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 56.5%, 주거 임차 25.5%, 회생절차 13.1% 순이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한화가 확보한 오스탈 지분 19.9%가 미 해군 수상함·잠수함 시장 진입을 노린 전략적 움직임”이라며 “오스탈 USA는 미 해군과 직접 계약해 배를 지을 수 있는 1급 조선소(Tier-1)이자 잠수함의 핵심 모듈을 공급하는 주요 협력 조선소(Tier-2)여서 한화가 미국 방산 조선 분야로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업선과 군함 시장은 조달 구조와 규제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영역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 조선 시장 전체와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한화가 향후 기술 협력과 신규 프로젝트 참여에서 선택지를 대폭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III Batch-2 잠수함.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HD현대중공업

LNG·특수선 ‘선별 수주’… AI·방산 협력으로 수익성 강화

K-조선

올해 산업계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미국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겹치며 거센 변화를 맞았다. 그 속에서도 각 업권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초격차 기술력 강화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본 기획은 업권별 주요 이슈와 흐름을 되짚어보고, 산업 전반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2025년 글로벌 조선업은 발주 급감과 탈탄소 규제 강화, 미 해군 조선산업 확대 전략(MASGA)로 이어지는 공급망 지각변동이 한꺼번에 몰아친 격동의 한 해였다. 물량은 줄었지만 한국 조선업은 고부가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와 연료 전환·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력, 북미 MASGA 및 방산 협력 확대를 앞세워 수익성 개선의 기반을 다졌다.

◆ 고부가 선박 ‘선별 수주’, 적게 받아도 많이 남기는 방식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 세계 누적 발주량은 4499만CGT(표준선 환산톤수)(1627척)로, 지난해 같은 기간(7152만CGT·2994척) 대비 37% 감소했다. 한국 조선소는 1003만CGT(223척·점유율 22%), 중국은 2664만CGT(1067척·59%)를 기록했다. 물량은 중국이 앞서지만, 적당 CGT는 한국이 4만5000CGT로 중국(2만5000CGT)보다 80% 높다.

실제 수주 구성에서도 고부가 선종 율이 뚜렷하다. 한화오션은 올해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19척, 대형 컨테이너선 17척, LNG운반선 6척, 쇄빙연구선 1척을 합해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으로 총 43척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도 LNG운반선 7척, 1만5000TEU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 9척, 초대형 에탄선 2척, 서플탱커 9척, 해양 사전예비작업 계약 1기를 포함해 총 39척을 확보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LNG운반선 8척, LNG병커링선 6척, LPG·암모니아선 11척, 에탄선 2척, 컨테이너선 71척(대형급 38척), 탱커 18척(VLCC 8척), PC선 3척을 수주했다.

고부가선종 위주의 수주 전략은 실적 개선으로 이미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23~2024년 수주한 LNG운반선의 매

출 반영이 본격화되면서 조선3사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4조3527억원으로, 지난해 연간(2조1747억원)의 2배 수준을 9개월 만에 달성했다. 3분기 실적을 보면 HD한국조선해양은 매출 7조5815억원, 영업이익 1조5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4%, 164.5% 증가하며 분기 영업이익 1조원 돌파를 기록했다. 한화오션은 매출 3조234억원, 영업이익 2898억원으로 각각 11.8%, 1032% 증가했고, 삼성중공업은 매출 2조6348억원, 영업이익 2381억원으로 각각 13.4%, 98.6% 증가했다.

LNG·대형 컨테이너·특수선 집중 적당 4만5000CGT, 고부가 전략 조선 3사 영업익 1~3분기 4.3조 선별 수주 기반 수익성 개선 가속 고부가 수주, 매출 실적으로 이어져

◆ 탄소 규제 강화 속 조선업 기술 전환 가속

유럽연합(EU)은 EU·EEA 항만을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운 부문을 EU 배출권거래제(EU ETS)에 포함해, 배출연도 기준 올해 70%, 내년 100%까지 배출권 구매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오는 2035년 이후 기존 선박 연료에는 톤당 450~500달러, LNG에는 250~330달러의 추가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내다본다.

규제 강화 속에 조선 3사는 연료전환·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10월, 프랑스 선급(BV)로부터 암모니아 연료 적용 선박 설계에 대한 기본승인(AIP)을 받았다. 암모니아 연료 가스터빈 실증은 한화파워시스템 등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이며 오는 2027년 완료로 목표로 한다. 연비 개선을 위해 SGM(축발전기모터), ALS(공기유회환시스템) 적용도 확대하고 있다. HD현대는 지난달 수주한 컨테이너선 2척에 스크러버를 적용해 황산화물

배출을 줄였다. 지난 2월에는 1만5000TEU급 SMR(소형모듈원자로)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개념선(船)을 발표했으며 풍력 보조장치 윈드세일은 육상 실증을 마치며 실선 적용 검증을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아모지(AmoGI)의 ‘암모니아 파워팩’을 내년부터 국내 독점 생산한다. 지난 7월에는 HMM 2200TEU급 선박에서 아민 흡수식 OC CS(용액으로 CO₂를 선택 흡수) 실증에 성공했고 지난 10월에는 티팅형 풍력 보조장치 ‘세이버 윈’을 선보였다.

AI 기반 효율화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스웨덴 AI 기업 세타솔(Cetasol)은 해상 연료 효율 AI 시장이 오는 2033년 62억7000만달러(CAGR 14.7%)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조선소들도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0월 설계 자동화 플랫폼 ‘S-EDP’를 공개해 도면·문서·계산서 자동 생성과 설계 오류 최소화를 실현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래 첨단 조선소(FOS)’ 프로젝트로 지난해 완료한 1단계 ‘눈에 보이는 조선소’에서 디지털 트윈 기반 생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으며, AI 분석을 결합한 ‘지능형 자율운영 조선소’ 완성을 오는 2030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화오션 역시 드론·사물인터넷(IoT) 기반 공정 데이터 수집과 로봇 자동화를 통해 거제조선소의 스마트 야드 전환을 추진 중이며 미국 필리조선소에도 이를 적용해 북미 MRO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K-조선, 내년 MASGA 본격 가동… 세계 조선·방산망의 중심에 선다

미 해군의 조선산업 확대 전략인 ‘MASGA’가 구체화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북미 방산·MRO(유지·보수·정비) 진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제정과 MASGA 세부 계획 공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유럽·아시아를 잇는 군함·특수선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인도한 1만 3000TEU급 컨테이너 운반선의 모습.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은 미 해군의 조선산업 확대 전략인 MASGA의 핵심 파트너로 소개되며,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생산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해군 지원함 MR O 전문업체 비거마린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비거마린이 보유한 미 해군 인증 MRO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산하 NASSCO, DSEC와 3차 MOU를 맺고 미 상선·군수선 건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사모펀드서버러스 캐피탈, 산업은행과 함께 ‘한·미 조선산업 공동투자 프로그램’을 구성해 미국 내 조선소 인수·현대화, 기자재 투자, 자율운항·AI 기반 조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까지 MASGA가 논의·계획 단계에 머물렀다면 내년부터는 ‘실행 단계’로 전환될 여지가 크다고 본다.

암모니아·LNG·원자력 추진선 대응 AI 설계 자동화·스마트야드 구축 북미 MASGA·방산·MRO 참여 확대 현지 생산·투자·자율운항 등 강화 내년 LNG 수요회복·해의 프로젝트

HD현대·한화오션이 올해 북미에서 합정 MRO 실적을 쌓은 만큼 내년에는 현지 공동생산·투자,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유럽·아시아에서도 캐나다 60조원 규모 잠수함 사업을 포함해 잠수함·군함 프로젝트가 대기하고 있어 글로벌 특수선·방산 시장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현규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올해는 고선가 시기에 수주한 선박을 본격 인도하면서 조선 3사 수익성이 좋아졌다”며 “세계 수주량은 줄었지만 공급 과잉보다는 조선소 도크가 가득 찬 영향이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이미 투자가 결정된 LNG 사업이 많아 LNG선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산·MRO·원자력추진잠수함과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2단계 사업, 피지컬 AI 등 조선·해양 디지털화·자율화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metroseoul.co.kr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가장 가깝고 튼튼한 은행

전국 어디서나 가깝고
어떤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 은행

전국 최다 영업점과
인정받은 신용으로
고객과 함께 합니다

시작이 다른 은행
NH농협은행

운중도를 지키는 유일한 은행?

농협은행은 어디서나 손쉽게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1,064개 영업점으로 지역 사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5대 시중은행 기준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인증 최우량 은행

Aa3

MOODY'S

AAA

KR 한국기업평가
KOREA RATINGS

가장 가까운 NH농협은행

100% 국내 자본
100% 100% 100%

100% 국내 자본

시작이 다른 은행



▶ 더 알아보기



NH농협은행은 금융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그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 김건희 연관성은 못찾아

내란특검팀, 180일 수사 완료

尹, 권력 독점·유지 목적으로 계엄 김건희, 계엄 직후尹과 크게 싸워 추경호 외 국민의힘 의원 기소 없어 혁신당, 사법부 불기소 처분 규탄

12·3 내란 사태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4일까지 180일의 수사 기간 동안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내란의 연관성은 찾아내지 못했다. 또 사법부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고발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18일 출범한 특검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분하고, 남은 34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군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관계자, 정치인 등 27명을 기소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구속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일반이적죄·위증 등 혐의로도 잇따라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엔 내란우두머리방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상목 전 기획

재정부 장관도 위기 상황에서 국가기능 작동에 대한 책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당시 국민의회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당사로 공지하는 등 헌법질서 유지와 국민 보호 책무를 위반해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했으며, 권력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북풍 몰이’를 통해 계엄 요건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것도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김건희씨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주인공인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씨의 관계도 찾아내지 못했다. 또 측근 조사 결과 김씨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계획한 게 있었는데 다 망쳤다”며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 종료일인 지난 14일

불기소 처분했다.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나경원·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 체포방해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외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은 없는 셈이다.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특검 1명, 특별검사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 등 수사 인력 182명 등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를 위주로 하는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성한다. 특검은 별도의 백서를 만들지 않고 수사결과보고서를 이날 말에서 내년 초 중 대통령실·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사법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계엄의 밤 대법원의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화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2차 내란 종합특검” vs 野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으로 남은 의혹 밝혀야”

장동혁, 개혁신당 향해 협력 요청 “李 정권 막기 위해 힘 모아야” 국회 천막농성 재개로 대어투쟁

거대 양당이 각자 내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맞서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함께 특검 정국이 몰아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내란 종합 특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사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모아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

하는 2차 종합 특검을 두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에 한해 마무리하지는 것이지,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정치인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를 정쟁 유발을 위한 정치공세로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관련자에 대한 입건과 출국금지 등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주장이자 자신들의 현정질서 문란, 즉 윤석열 내란 수사와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몰타기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수석대변인도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한 개혁신당과 함께 공조하겠다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앞 본청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했겠는가”라며 “결국, 재판에서 통일교는 입을 닫고 말았다.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기가막힌 타이밍에, 기가막힌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대표는 개혁신당을 향해 “이재명 정권은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권력”이라며 “이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 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을 재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저지하면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겨냥해 대어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김범석 쿠광 이사회 의장,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與野 “책임회피 말라”

불출석 사유에 ‘비즈니스 일정’ 무책임한 모습에 정치권 격분

김범석 쿠광Inc이사회 의장이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광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낸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기업 총수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쿠광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의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해외에서 거주

중이고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고 밝혔다.

매해마다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여러 이유를 대며 한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 의장이었기에 정치권은 격분한 모습이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국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설명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쿠광은 노동 실태와 산업안전 문제, 플랫폼 내 불공정 거래 논란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 문제가 제기돼 온 기업”이라며 “그런 기업의 총수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돈 벌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한 김 의장, 강한승

전 쿠광 대표, 박대준 전 대표를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국민 안보 위기를 초래한 쿠광 책임자들이 청문회를 피할 궁리만 한다면 큰오산”이라며 “무책임에 대한 더 큰 국민적 분노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최고책임자인 범김(김 의장)과 이번 사태의 핵심 증인들 모두가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대한민국을 호구로 여기는 쿠광 경

영진의 생각을 그대로 담은 처사”라며 “국회 청문회는 국민의 질문을 대신 묻는 자리다. 그 자리를 외면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쿠광의 고객이자 피해자인 국민앞에 서는 것조차 거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쿠광 개인정보 유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부의 침해사고 조사 시 귀책기업의 방해가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귀책기업이 조사단 운영비 전액을 지급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박태홍 기자

대한민국을 더 높게

AI메모리 기술로 한층 더 빛날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자부심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강남 한복판’ 대치학원·테헤란로 도보권… 현금 동원력 관건

Q 르포 | 서울 ‘역삼센트럴자이’ 가보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들어서는 ‘역삼센트럴자이’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다. 단지가 역에 바로 붙은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 7번 출구로 나와 걸으면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도곡초등학교를 비롯해 중·고교가 반경 1km 내에 밀집한 것은 물론 대치동 학원가와 롯데백화점 강남점도 걸어갈 수 있다. 일자리가 밀집한 테헤란로도 걸어서 15~20분 안팎이면 된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생활하기 편한 위치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역삼동 일원 역삼동(758·은하수·76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다. 전체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122㎡ 87가구에 그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0가구 ▲84㎡A 42가구 ▲84㎡B 13가구 ▲84㎡C 11가구 ▲84㎡D 5가구 ▲122㎡ 6가구 등이다.

역삼동에서 신축으로는 ‘강남센트럴

수인분당선 한티역서 도보 10분 반경 1km 내에 초·중·고교 밀집 올해 마지막 ‘로또 청약’이지만 현금 최소 25억은 들고 있어야

아이파크’가 지난 2022년 입주한 이후 처음이며, 향후에도 몇 년간 입주물량이 없는 귀한 신축이다. 강남센트럴아이파크이전엔 ‘역삼자이’와 ‘테헤란아이파크’가 각각 2016년, 2014년 입주했음을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공급물량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강남구 전체를 놓고 봐도 내년 도곡동 ‘래미안레네투스’ 308세대 한 곳만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단지 자체는 크지 않지만 조경과 편의시설은 모두 마련됐다. 조경 공간에는 중앙광장을 비롯해 리빙가든과 테마형 놀이공간인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독서실, 코인세탁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 모형도.

/안상미 기자

등이 들어선다. 주차공간은 세대당 무려 2대다.

건본주택은 사전 예약으로 시간당 20팀만 들어와 봄비지 않고 둘러보기 편했다. 강남 핵심입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사전예약은 빠르게 마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객들은 모형도와 평면도를 꼼꼼히 살펴면서도 분양물량이 워낙 적다보니 경

쟁률이 치솟을까 우려했다.

건본주택에는 84㎡A 타입과 122㎡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유닛이 마련됐다

국민평형인 84㎡는 대부분 선호하는 판상형에 4베이 구조다. 대면형 주방에 안방 드레스룸 등으로 수납공간이 마련됐고, 오픈발코니로 실사용 공간이 넓어졌다. 122㎡ 타입은 4베드룸·2욕실 구조로 확실히 거실부터 주방, 드레스

룸 등이 모두 확보되어 있다.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되어 전용면적별 최고가 기준 59㎡ 20억1200만원, 84㎡ 28억1300만원, 122㎡ 37억9800만원이다. 2022년에 입주한 ‘강남센트럴아이파크’의 전용 59㎡가 지난달 32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입점한 ‘역삼래미안’의 경우 2005년 입주한 구축임에도 전용 80㎡가 지난 10월 35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마지막 ‘로또 청약’이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로 현금 동원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9·7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은 분양금의 40%만 가능하고, 10·15대책으로 잔금시 59㎡는 최대 4억원, 84㎡와 122㎡는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84㎡라면 현금 25억원, 122㎡는 현금 35억원 이상은 들고 있어야 한다.

투기와열지구에 청약과열지역으로 전매제한 3년에 거주무기기간 2년, 재당첨제한 10년이 적용된다. 입주는 오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스타트업, 성장단계 최적화 맞춤 금융지원 강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본연의 비즈니스 집중환경 만들 것”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도전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025 허브 데이(HUB Day)’에서 “앞으로도 그룹 차원의 금융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스타트업이 본연의 비즈니스와 기술 개발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 허브 데이는 KB스타터스 참여 기업과의 협업·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스타트업 대모데이다. KB금융은 정부의 육성·투자 기관, 창업 지



지난 12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진행된 ‘2025 허브 데이(HUB Day)’에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왼쪽 세번째), 이창권 디지털·IT부문장(두번째), 이재근 글로벌사업부문장(왼쪽 열번째), 윤법렬 KB인베스트먼트 대표(열한번째)와 ‘KB스타터스’ 참여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원 기관,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등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양 회장과 이창권 디지털·IT부문장, 이재근 글로벌사업부문장, 윤법렬 KB인베스트먼트 대표와 KB스타터스 참여 기업을 비롯한 유관

기관의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여해 혁신 기술 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KB금융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초기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5년 3월 금융권 최초의 핀테크랩

인 ‘KB 이노베이션(Innovation) HUB센터’를 설립했다. 현재까지 총 394개에 이르는 초기 창업 기업을 KB스타터스로 선정·육성하고 있다. 기술 검증부터 사업화·투자·글로벌 진출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모험자금을 공급하고 실질적인 협업 기회를 제공해 누적 투자 3044억원, 제휴 422건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그룹 차원의 일원화된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KB국민카드의 ‘퓨처나인’ 프로그램과 KB스타터스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와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등 스타트업과의 실질적 협업을 더욱 강화해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성장이 곧 KB금융의 경쟁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K-드론’ 수출 368억 연평균 59.4% 성장세

국토부, 美·독일 등 30개국 수출

‘한국산’ 드론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산업 해외수출이 368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32억원 대비 58%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연평균 59.4%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국은 13개국에서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즈베키스탄, 독일, 싱가포르 등 30개국으로 늘어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폭넓게 분포했다.

수출 품목도 다양해졌다. 수직이착륙기, 다목적 임무기체, 모니터링·촬영용 기체, 배터리, 비행제어기(FC) 등 기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해 동력발전기 등 시설점검 서비스, 어군탐지 등 소프트웨어와 드론 활용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이는 국토부가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드론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국토부가 국내 우수기업을 홍보하고 외국기관과 기업들과 연계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에서 드론 로 드쇼를 개최하고 국제 박람회에 한국 대표단을 참가시키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10개 국가에서 해외 로 드쇼를 개최해 올해는 미국과 일본에서 열렸다. 또한 지난해 카자흐스탄, 올해 가나 현지에 현지 드론 아카데미를 개설해 외국 드론 관련자들과 우리 기업이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올해 17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다. 작년 천만불 수출의탑 수상에 이어 올해 제62회 무역의날 300만불과 200만불 수출의탑을 드론 기업이 수상하기도 했다. 나아가 올해 29개 국과 MOU 등 업무협약 59건을 체결했으며, 현지 실증사업(PoC) 20건을 추진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韓, 위기대응 능력 충분… 필요시 선제조치”

이억원 금융위원장

“3대 금융 대전환 가속화 위해 ‘금융시장 안정’ 뒷받침 필요”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위기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이란 든든한 토대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반기 우리 경제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확대됐지만,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경제 및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충분하다”면서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고, 낮은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고려한다면 우리 경제는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과 위기대응 정책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억원 위원장은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던 구

조적 문제들도 6·27 가계부채 관리대책,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노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3대 금융 대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PEANUTS®



CHARLIE BROWN ORNAMENT
Sweet Pumpkin Filling



CHRISTMAS WREATH
Pistachio Cream



SANTA BELLY
Vin Chaud Filling



SNOOPY
Hazelnut Chocolate Spread



©2025 Krispy Kreme Doughnut Corporation
©2025 Peanuts Worldwide LLC | www.peanuts.com

LG전자, 진화한 ‘시그니처’ 선봬다

냉장고 등 AI 기반 제품 경쟁력 ‘UP’

내년 CES에서 신규 라인업 공개
식기세척기 등 10개 제품군 확대
핵심 부품 ‘AI 코어테크’ 적용

LG전자가 출시 10년째인 프리미엄 브랜드 ‘LG 시그니처’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LG전자는 오는 1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AI로 한층 진화한 LG 시그니처 라인업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LG 시그니처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레인지 ▲월 오븐 ▲후드 ▲쿠키탱 ▲후드 겸용 전자레인지까지 총 10개 제품군으로 확대됐다.

출시 10년을 맞아 새단장한 시그니처는 AI기반의 편의기능도 다양하게 적용됐다. 새로운 LG 시그니처 냉장고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으로 고객의 일상 대화를 이해하는 AI 음성인식 기능이 적용됐다.

LG전자만의 핵심 부품 기술력에 AI를 접목한 ‘AI 코어테크’도 적용됐다. AI 코어테크는 AI로 제품 사용 환경을



LG전자가 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AI로 한층 진화한 LG 시그니처 라인업을 공개한다. 사진은 인테리어컷. /LG전자

분석해 최적화 모드를 제공함으로써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모두 끌어올린다.

LG전자는 LG 시그니처 철학을 담은 정제된 디자인 정체성은 그대로 이어가되 국가·지역별 고객의 취향을 고려하는 맞춤 전략을 더한다. 지역·국가에 따라 각기 다른 고객들의 프리미엄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고객층을 확대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위치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LG전자는 시그니처 라인업에 공간에 딱 맞는 설치로 인

테리어와의 조화를 극대화하는 고품격 디자인을 강조한다. LG전자는 시그니처존을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폴리폼과 협업해 꾸민다. 공간은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빌트인 스타일과 메탈 소재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심리스 ▲시그니처 상징이 되는 골드 라인을 적용한 아이코닉 ▲화이트톤과 고급 우드 소재로 세련된 질감을 강조한 테일러드 등 세 가지 테마로 연출해 다양한 공간에서 어울리는 프리미엄 디자인의 매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DL케미칼 “여천NCC, 구조개편 등 책임 강화”

설비 섰다운 등 고강도 혁신 예고
“주주로서 자금조달·고용안정 노력”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여천NCC를 두고 공동 대주주인 DL케미칼이 단순 지원을 넘어 구조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놴다. 단순한 비용 조정이나 부분 감산이 아닌, 대규모 설비 섰다운과 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고강도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DL케미칼은 최근 진행된 외부 원료 가격 컨설팅 결과와 관련해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한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합의된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여천NCC 구조혁신안에 NCC 원가 보전 비중 확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설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임



여천 NCC 전경. /뉴시스

시 중단된 3공장(47만 톤)보다 더 큰 규모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놴다. 당초 3공장의 영구 폐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보다 규모가 큰 1공장 또는 2공장(각 90만 톤)을 섰다운해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수익성 회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운스트림 부문에 대해서도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수익성이 낮고 구

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군은 단계적으로 단종하고, 일부 설비 라인 은스크랩하거나 고부가 제품 전환을 위해 재배치할 계획이다.

여천NCC의 자금 조달과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생산시설 감축 과정에서 잉여 인력이 발생할 경우 내부 재배치와 지원 방안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생 노력에도 시황 악화로 유동성 문제가 재발할 경우 주주로서 금전적 추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현 DL케미칼 부회장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DL케미칼은 여천NCC의 주주로서 원가 보전, 비즈니스 재편, 고용, 재무까지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두산에너지빌, 1300억 규모 발전소 주기기 공급계약

중동 발전시장 수주 잇달아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카타르 대형 가스 복합발전소 주기기 공급 계약을 수주하며 중동 발전 시장에서 가스복합발전 주기기 공급 실적을 잇달아 쌓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삼성물산과 ‘카타르 파실리티(Facility) E 가스복합 발전소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고 15일 밝혔다. 수주 금액은 약 1300억 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 남동쪽 약 10km 지역에 총 2400MW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가스복합발전소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430MW급 스팀터빈과 발전기 각 2기와 보조기기를 포함한 핵심 주기기를 오는 2029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은 “카타르에서의 연속 수주와 사우디 등 중동 전역에서의 공급 계약 확대를 통해 글로벌 가스복합발전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요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수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한국GM, 2026 비즈니스 전략 컨퍼런스

“GMC 브랜드 확장 등 3억弗 이상 투자”

비자레알 사장, 한국시장 활성화 강조

한국GM이 국내 시장 투자 전략 등을 공유하며 미래를 위한 주요 이정표를 제시했다. 또 국내 시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15일 한국GM은 인천 서구 GM청라 주행사험장 타운홀에서 ‘GM 한국사업장 2026 비즈니스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해 그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한국GM은 GM의 글로벌 성장 전략에서 핵심적인 생산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 기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GM에 따르면 제품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금액만 3억 달러(약 4429억원)에 달한다.

한국GM은 내년 초 부익 브랜드를 런칭하고 GMC 브랜드는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 내 불륜시장인 중형 SUV 등 4개 이상의 신차를 출시한다. 캐딜락은 지난달 출시한 에스컬레이드 IQ에 이어 추가 전기차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북미를 제외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GM 산하 4개 브랜드를 모두 도입한 지역은 한국이 최하다. 콜로시

부사장은 “판매·서비스 채널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슈퍼크루즈(Super Cruise)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폭넓은 차량 포트폴리오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은 이날 청라 주행사험장에 신설된 신규 벙커열 센터도 공개했다. 회사 내 분산돼 있던 ▲전기 시스템 테스트 벤치 ▲가상현실(VR) 워크-업 스테이션 ▲드라이버 인 더 루프 시뮬레이터 등 10개 랩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가상 개발 환경과 주행 시험장을 통한 물리적 테스트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개발 효율성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비자레알 사장은 “한국GM은 지난 20여 년간 1330만 대를 생산하고 국내 시장에 250만 대를 판매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차량 판매의 전주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고객을 위한 첨단 주행 기술을 도입해 한국 자동차 생태계와 지역경제의 강력한 파트너로서 한국 시장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LS전선, 美 히토류 자석공장 설립 추진

버지니아주와 협력 방안 논의

LS전선이 미국에 히토류 영구자석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

LS전선은 신규 투자 후보지를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시로 선정하고 현지 공장 설립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신규 공장은 LS전선이 건설 중인 해저케이블 공장 인근 부지가 유력하며, 현재 버지니아주와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히토류 자석은 전기차(EV), 풍력발전기, 로봇, 전투기, UAM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소재다. 글로벌 생산의 약 85%를 중국이 차지하고, 미국 내 생산 기업은 극소수에 그쳐 공급망 다변화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해 왔다.

생산된 영구자석은 주요 완성차 및 전장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며, 회사 측은 이번 사업이 미국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한



폴 대버 미국 상무부 차관(왼쪽부터),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구본규 LS전선 대표 등 참석자들이 1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시 히토류 자석 공장 투자 발표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국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S전선은 미국 내 세각선과 고품질 구리 소재 생산도 검토 중이다. G M, 현대차 등에 세각선을 공급해온 만큼, 영구자석 생산까지 갖추면 모빌리티 핵심 소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HJ중공업, 美 해군 군수지원함 MRO 계약

〈유지·보수·정비〉

유상철 대표 “MRO 경쟁력 인정받아”

HJ중공업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첫 계약을 체결했다.

HJ중공업은 15일 미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 소속 4만 톤급 건화물 및 탄약 운반선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의 중간 정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함정의 운용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MRO와 개선 작업이다.

HJ중공업은 내년 1월부터 부산 영도

조선소 안벽에서 정비 작업에 착수해 선체 및 주요 시스템 점검·수리, 부품 교체, 도장 작업 등을 진행한 뒤 내년 3월 말쯤 함정을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정비 역량과 기술력, 계약 이행 능력 등 MRO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5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 해군이 요구한 납기와 품질을 충족해 신뢰를 쌓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내년 中企 경영환경 ‘회색 전망’ 비용 절감·생산성 향상에 집중

중기중앙회, 내년 경영계획 조사

56.8% “올해 경영환경 어렵다”

63.1% “내년 전망도 비슷할 것”

내년 핵심 전략, 비용절감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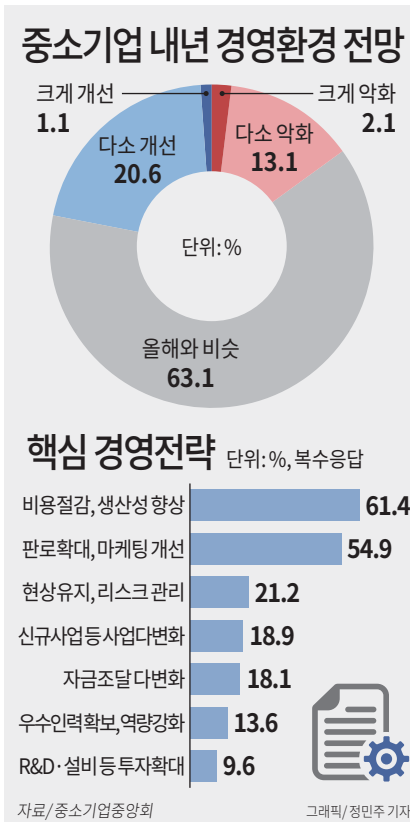
금융지원·세금완화 절실 77.7%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올해 경영 환경이 어려웠는데 내년에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보다 다소 많았다.회색빛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내년 핵심 경영전략은 ‘비용 절감’이 ‘판로 확대’보다 앞섰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를 실시해 15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2026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 63.1%로 압도적이었다. 제조업(60.4%)보다비제조업(65.8%)이더 많았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1.7% (크게 나아질 것+다소 나아질 것)로 ‘악화될 것’(15.2%)이란 답변(크게 악화될 것+다소 악화될 것)보다 다소 높았다.

‘올해 경영환경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56.8%가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도 어려웠는데 내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올해 ‘어렵지 않았다’는 답변은 9.6%에 그쳤다. 33.6%는 ‘그저 그랬다’고 응답했다.

내년 핵심 경영 전략(복수응답)으로는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 61.4%로 가장 많아 기업들은 다소 보수적으로 경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4.9%), ‘현상 유지 및 리스크 관리 중점’(21.2%) 등

도 비교적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내년에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 ▲금융 지원 및 세금 부담 완화(77.7%) ▲R&D·투자 지원 확대(24.7%) ▲원자재 수급 안정화(24.1%) 등을 꼽았다.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웠던 기업일 수록 ‘판로 및 수출지원 확대’를 가장 절실히 원했다.

올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힘들었던 이유로는 ‘내수 부진’이 79.8%로 압도적이었다. ‘인건비 상승’(31.7%), ‘자금조달 곤란’(27.1%) 등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경영에 대비가 필요한 요소로는 ‘인력난 및 노동환경 변화’가 41.5%로 가장 많았고, ‘산업변화에 뒤처진 규제’(16.7%),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9.5%) 등의 대응도 필요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환경을 어려웠다고 평가했고 내년 경영환경도 올해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중소기업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부도 자금조달 곤란과 인력난 등 애로 요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최근 2년간 비상구 조작 14건 발생
형사고발·민사소송·탑승거절 조치

대한항공은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승객들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문제의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

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만져본 거다. 그냥 해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반응했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 도어에 손을 댄 뒤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법행위라고 대한항공은 강조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중, 부유식 SMR 플랫폼 ‘FSMR’ 개발

원자로 등 구획 설계로 안전성 강화

삼성중공업이 다양한 방식의 소형 원자로(SMR) 탑재가 가능한 부유식 해상 원자력발전 플랫폼 ‘FSMR(Floating SMR)’을 개발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선급 ABS로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개발한 ‘SMART 100’ 2기를 탑재한 FSMR의 개념설계 인증(AIP)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SMART 100은 일체형 SMR로, 지난해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 인가를 받았다.

이번 인증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SMR과 부유체 통합, 원자력 발전설비 종합 설계, 다중 방벽 원자로 격납용기 개발을 맡았고 KAERI는 육상용 SMR인 SMART 100의 해상 적용 전환 과제를 수행했다.

FSMR은 다양한 종류의 SMR을 탑재할 수 있도록 범용 플랫폼 형태로 설계됐다. 원자로와 발전설비를 기능별로 분리해 그룹화한 뒤 배치하는 ‘구획 설

계’를 적용해 SMR이 배치되는 구획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SMR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유식 원자력 발전설비의 핵심 구성 요소인 원자로와 안전시스템을 하나의 격납용기 안에 모듈화해 안전성을 높였고, 격납용기 내부에 SMR을 배치해 선상 탑재 전 육상에서 시험할 수 있어 공기 단축도 기대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안영규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부사장)은 “이번 인증은 해상 원자력발전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플로팅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상 원전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진영 KAERI 선진원자로연구소장은 “SMART100 기반 AIP 획득은 우리 원자력 기술의 혁신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해양 원자력 산업 선도국 도약을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KFI타워에서 열린 ‘2025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앞줄 왼쪽 3번째부터)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객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기업규모 아닌 경제발전 중심으로 전환 필요”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
중견련 “성장 위한 경영 의지 촉진”
KDI 김 위원 “성장 견인 정책 재설계”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지원정책을 기업 규모가 아닌 경제발전 기여도를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KFI타워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서 “정책 수립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규모 기준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투자, 고용, 해외 시장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기여도를 기

준으로 정책 지원을 배분,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의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온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아울러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 강화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발전 해법이 될 것”이라며 “기업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 등 정책 지원이 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 분석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규모만이 아닌 투자, 고용 등 실질적인 기업 성과에 기반한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 김민호 선임연구위원은 “규모가 아닌 투자·고용·R&D 기준 조세 혜택 전환, 기업별 성장 요인 맞춤형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지전문대 구성권 교수는 ‘기업 규모별 조세특례의 차등 적용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조세특례 차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투자와 고용 규모에 비례한 조세특례 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제 발전 정책’으로서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중소기업계, 투자·규제 등 입법과제 건의

중기중앙회, 민주당과 타운홀 미팅
정청래 대표 간담회 후속 결과 공유
김기문 “민주당 입법 지원 나서야”

중소기업계가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을 갖고 투자 촉진, 규제혁신, 성장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과제를 건의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민주당과의 타운홀미팅은 지난 9월4일 개최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현안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력한 결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의 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

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는 민주당에선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한정에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김남근 의원, 김동아 의원,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회장 외에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약 80여명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AC 투자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 ▲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TDM 편책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AI 워터마크 의무화 ‘동상이몽’ “기술악용 방지” vs “과잉규제”

‘AI 기본법’ 하위법령 두고 갈등
영상 전체에 AI 식별표지 삽입
정부 “딥페이크 등 사회혼란 방지”
업계 “글로벌 추세와 정면 배치”
전문가 “워터마크 무력화 대응 필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범람하는 저질 AI 콘텐츠인 ‘AI 슬롭(AI Slob)’과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 AI 생성물에 식별표지(워터마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기술 흐름과 현실을 무시한 과잉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입법 예고한 AI 기본법 시행령안에 생성형 AI 및 고영향 AI를 활용한 결과물에 가시적 식별표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나 가짜 뉴스, 허위 의료 광고 등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최근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는 ‘AI 가짜 의사’,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정보 제공자는 AI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기술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신뢰 기반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겠지만, 투명성 확보라는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시행령 안에 포함된 AI 식별표지 삽입 의무가 업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생성형 AI 및 고영향 AI 활용 결과물에 눈에 보이지 않는 AI 식별표지는 물론 눈에 보이는 표식까지 하도록 해준다.

/제미니이로 생성한 이미지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표시 의무 고시와 AI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IT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규제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추세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8일 과기정통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 내용이 알려지며 반발이 거세졌다. 당시 과기정통부 측은 영상물의 경우 도입부나 말미에 단순 고지하는 수준을 넘어, 영상이 재생되는 전체 분량 내내 AI 식별표지를 삽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창작의 주체가 아닌 단순 채색, 화질 향상, 오타 수정 등 보조적 도구로 활용한 경우까지 일일이 식별 표지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는 창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피로감과 선입견만 심어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AI 식별표지와 관련한 전 세계적 추

세는 ‘비가시적 식별표지’로 향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구글 답마인드,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비가시적 워터마크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이미지에 노이즈 패턴을 숨거나 오디오 파형에 비가청 신호를 숨기는 식이다. 네이버,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콘텐츠 출처 및 진위 확인을 위한 연합체(C2PA)를 구성해 기술 표준화에 나섰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베리퍼이드마켓리서치는 디지털 워터마크 시장이 2032년 약 8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표기 의무화를 넘어, 워터마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가시성 여부에 관계없이 AI 식별표지는 삭제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구글의 ‘제미니 2 플러스’가 자사가 만든 이미지의 워터마크를 명령 한 번에 지워 논란이 됐으며,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연구진은 통계적 기법으로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무력화하는 ‘언메이커’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98개 실행과제 담은 ‘韓 AI행동계획’ 공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100일간 ‘실행중심 국가전략’ 마련
생태계 조성, 범국가 대전환 등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글로벌 3강 도약을 위한 범국가적 청사진을 내놔다. 단순히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시한과 목표를 명시한 98개 실행 과제를 통해 ‘AI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5일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9월 출범한 전략위가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100일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것으로,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한 ‘실행 중심의 국가 전략’이다.

행동계획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 장 이상을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를 적극 도입해, 대규모·강소형 데이터센터가 균형 잡힌 ‘AI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피지컬(P hysical) AI’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범국가 AI 대전환’도 추진한다. 제조업, 국방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2026년 2분기까지 ‘국방 AI 기본법(가칭)’ 제정과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마련해, 장병과 AI가 협업하는 국방 AX(AI 전환)를 본격화한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2026년 말까지 ‘AI 정보공유·분석센터(AI-ISAC)’도 설립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초·중·고 AI 필수 교육체제를 마련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노동·복지·의료 등 사회 전반에 AI 혜택이 스며들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AI 기본법 개정 협의체’를 구성, 개인정보 및 저작권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

임명연 전략위 상근부위원장은 “내년 AI 관련 예산 9조9000억원 중 신규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략위는 이번에 공개된 행동계획안에 대해 1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0일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산·학·연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한 뒤,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KT, ‘외식·여행·문화’ 풍성한 멤버십 혜택

이달 31일까지 전 등급 고객 대상

KT가 이달 31일까지 전 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12월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 고 15일 밝혔다.

케이크와 외식, 배달 할인부터 여행·문화 콘텐츠까지 다양한 제휴 혜택을 제공하며, 일부 혜택은 최대 50% 할인된다.

‘달달초이스’는 고객이 11종의 혜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롯데마트 6000원 금액권, 파스쿠찌 홀 케이크 1만원 할인, 더플레이스 35% 할인, 폴라셋 커피 50% 할인 쿠폰, 버거 세트 할인, 배달앱 제휴 할인, 화장품·영화 예매권 할인 등이 포함됐다.

‘달달스페셜’은 중복 이용이 가능하며 여행·쇼핑·생활 분야 제휴 혜택을 제공한다. 크리스마스 시즌 케이크 할인, 외식 및 쇼핑 할인, 영화 예매권, 면세점 적



모델들이 KT멤버십 12월 달달혜택을 소개하는 모습.

/KT

립금, 해외여행 상품 할인, 자동차 정비 할인, 게임 할인 쿠폰 등이 마련됐다.

만 34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한 ‘Y혜택’에서는 영화 굿즈와 라이브시네마 이용권, 렌터카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문화 혜택 프로그램에서는 12월 한 달간 뮤지컬과 전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뮤지컬과 전시는 최대 50% 할인된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AI 브리핑’ 검색비중 20% 돌파

최수연 대표, 연말 목표 조기달성
정확도 강화 위해 자료 대폭 확충
향후 생활정보 등 적용범위 확대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인 ‘AI 브리핑’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11일 기준 AI 브리핑 검색 비중이 전체 검색의 20%를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사진)가 지난 8월 올해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제시한 연말 목표치를 앞당겨 달성한 성과로 평가된다.

AI 브리핑은 방대한 이용자 경험 기반 정보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실제 사용 맥락에 맞춘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체류 시간과 활용도가 동시에 높아졌



다는 것이 네이버 측 설명이다. 검색 결과의 신뢰도와 실용성을 강화한 점이 검색 비중 확대에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우주·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 검색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누리호 4차 발사와 아리랑 7호 위성 발사 이후 관련 관심이 급증하자, AI 브리핑을 통해 보다 정교한 정보 제공에 나선 것이다. 예를 들어 ‘별 관찰하기 좋은 곳’을 검색하면 단순 위치 정보뿐 아니라 해당 시설의 운영 요일, 입장료, 주차 가능 여부 등 실제 방문에 필요한 세부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 제공이 가능한 배경에는 오랜 기간 축적된 실제 방문자 후기

와 현장 경험 데이터가 있다. 네이버는 기존 텍스트 중심 정보에서 나아가, 이용자가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검색 경험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정확도 강화를 위해 전문 콘텐츠 기반 자료를 대폭 확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과 노출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단순 생성형 답변을 넘어 검증된 정보 중심의 AI 검색을 지향한다는 전략이다.

AI 브리핑 검색 비중 확대는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해석된다. 향후 생활 정보, 전문 지식, 취미·여가 영역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며 검색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빛나 기자 vitna@

건강창업의 모든 것!



대한홍삼(주)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창업문의 : 1522-7585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미래에셋, 박현주 ‘글로벌 전략’ 결실… 운용자산 500조 돌파

〈미래에셋그룹회장〉

3년만에 운용자산 두 배로 불어나
코인 등 디지털 자산시장 영역 확장
“다양하고 우수한 투자 기회 제공”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해외진출 22년 만에 총 운용자산 500조원을 돌파했다. 미래에셋그룹 글로벌전략가(GSO)인 박현주 회장이 주도한 ‘글로벌 전략’이 결실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15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국내의 운용자산(AUM)이 총 500조원에 달했다. 2022년 말 250조원 수준이었던 운용 자산이 약 3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난 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같은 성장 배경으로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꼽았다. 미래에셋은 지난 2003년 국내 운용사 중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유수의 글로벌 자산운용사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에 대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놓칠 수 없다며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22년이 지난 지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베트남,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홍콩 등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500조 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회장

을 운용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의 약 43%(3분기 누적 연결 기준)가 해외 법인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운용사 중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운용사는 미래에셋이 유일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 시장에서 도전을 이어온 결과 수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창출되는 등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에서 운용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견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이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글로벌 ETF 총 운용자산은 300조 원에 달한다. 이는 글로벌 ETF 운용사 12위 수준이다. TIGER ETF는 국내 개인 투자자 선호 1위 브랜드로 자



지난 6월 런던거래소에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 상장 기념 축하 메시지가 송출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리 잡았으며, 해외 시장에서는 'Global X'가 다양한 킬러 프로덕트(Killer Product)를 선보이며 ‘글로벌 TOP Tier ETF Provider’로 성장했다.

실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외 시장에서 유망한 ETF 운용사를 인수하며 글로벌 ETF 운용사 능력을 쌓아 나가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캐나다 ETF 운용사인 ‘호라이즌스(Horizons ETFs)’를 시작으로 2018년 미국 ‘글로벌엑스(Global X)’, 2022년 호주 ‘ETF 시큐리티스(ETF Securities)’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 ETF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왔다. 특히, ‘ETF Securities’는 국내 운용사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해외 ETF 운용사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로,

미래에셋이 해외법인 수익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금융그룹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회장은 이런 활약을 인정받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 합류했다. 앞서 국제경영학회(AIB·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는 ‘올해의 국제 최고경영자상’(International Executive of the Year Award)을 수여했다.

글로벌 무대를 향한 박 회장의 발걸음은 이제 시작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통 자산을 넘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인 현·선물과 전략형 ETF 등 가상 자산 관련 상품을

운용 중이며, 스마트 컨트랙트와 온체인 펀드 등 차세대 금융 인프라 기술을 확보해 향후 국내 규제 완화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올해 국내 종합 자산운용사 가운데 처음으로 퇴직연금 전용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M-ROBO’를 출시하는 등 연금 펀드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금 펀드 설정액 1위’, ‘TDF 점유율 1위’ 등 연금 펀드 운용 노하우에 AI 기술과 운용 철학을 결합한 종합 연금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연금 시장의 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 1위로 재선정, 판교 테크윈타워 성공적인 매각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며 신뢰받는 투자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부회장은 “운용 자산 500조원 돌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의 DNA가 이뤄낸 기념비적인 성과”라며 “단단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유일·독보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투자 전략과 혁신적인 킬러 프로덕트 개발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우수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WM·연금 등 서비스 고도화… 투자자 금융 여정 뒷받침

〈자산관리〉

뉴메트로 10년 기획

전환기의 대한민국
투자의 즐거움, 금융 넘어 삶으로

하나증권

WM 부문 조직개편… 경쟁력 강화
AI 기반 포트폴리오 시스템 도입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다. 내일의 자산을 키워내는 ‘성장(Growth)’의 씨앗이자, 더 나은 삶을 향한 발판이 된다. 하나증권은 이러한 투자 본연의 가치를 상기하며 조직을 재편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 확대와 디지털 기반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해 투자자들의 금융 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자산관리(WM)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지난 7월 ‘하나더넥스트실’과 혁신 Growth팀’을 신설했다. ‘하나더넥스트’는 지난해 하나금융그룹이 출시한 시니어 특화 통합 브랜드로, 은퇴자 대상 연금 서비스에 집중한다. 시니어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하나더넥스트 랩 시리즈’를 선보이기도 했다. ‘혁신 Growth팀’은 총 4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TFT로 리서치·IT·마케팅·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모였다. 말 그대로 혁신적인 성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하나증권은 기업금융본부도 재정비하며 기존 IB 그룹을 IB 1·2부문으로 나눠 신설한 뒤 승격했다. 상반기 기준 전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하나증권 THE 센터필드 W’ 개점 기념식에서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가운데), 초대형 WM그룹장(왼쪽 두번째), 박춘희 하나증권 THE 센터필드 W 센터장(왼쪽 첫번째)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증권

통 IB 부문에서 회사채 인수실적 증가, 구조화 딜 유치 및 부동산 투자 수익 증가로 수수료 이익은 증가했다. 다만 환율하락에 따른 외화평가손 및 보유주식 평가손으로 인해 상반기 IB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8억원 감소한 74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인수주선 수수료는 122억원에서 168억원으로, 기업금융 수수료는 198억원에서 364억원으로 늘어났다. 각각 37%, 84%씩 증가한 것이다.

하나증권은 “초대형 IB 지정 및 발행 어음 인가에 총력을 기울이고, 인수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확장한 기업금융본부 내 인력 확대 작업에 주력하고 채권자금조달(DCM), 기업공개(IPO) 등 전통 IB 사업 확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의 자산관리 협의체에서 선정한 추천펀드와 하나증권 리서치 하우스에서 선정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망설이는 고객들을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해 미운용자산이 방지되지 않도록 돕고 있다는 부연이다.

올해는 퇴직연금 차세대 시스템을 오픈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개인화된 포트폴리오 시스템인 ‘AI 연금프로’를 도입했다. 아울러 사내 수익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직원별 수익률을 평가하고, 우수 직원들의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는 등 전체적인 투자 역량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하나증권은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B) 원리금 보장 상품 운용 수익률은 4.00%를 기록하면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박상빈 하나증권 연금사업단 단장은 “하나증권은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장기 수익률 부문에서 증권업계 최상위 수준의 성과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과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및 대면 상담채널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비대면 손님을 위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의 인공지능(AI) 챗봇, 유선예약상담, 퇴직연금 전용 상담 전화 등 다양한 지원을 열어 뒀다. 더불어 수수료가 무료인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손님도 전담직원을 배정받아, 퇴직연금 개설부터 수령까지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투자자들의 니즈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 하나증권은 미국 등 글로벌 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투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제공하며 서학개미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으며, 7월에는 미국 국제 담보대출 서비스를 발빠르게 도입해 금융소비자들의 자산 활용 폭을 넓혔다.

남택민 하나증권 PWM영업본부장은 “하나증권은 날로 높아가는 해외주식에 대한 열기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며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들이 손님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국거래소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내년 2월 13일까지 한시적 적용

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인하한다.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TX)의 가파른 성장세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여진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년 2월 13일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0.0023%인 단일 수수료를 대체거래소와 동일한 차등요율로 변경해 지정가주문(메이커) 0.00134%, 시장가격주문(테이커) 0.00182% 적용한다. 이 경우, 넥스트레이드와 같은 수준으로 기존보다 20~40% 낮아진다.

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과 면제는 한국거래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넥스트레이드와 같은 거래시간 연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회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의 이러한 행보는 넥스트레이드의 급성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10월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 13조3158억원을 기록하면서 한국거래소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지난 8월에는 절반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로봇·방산 신규단지 조성 계획 이차전지 전주기 밸류체인 완결

산업부, 특화단지 신규 공모 개시
휴머노이드·항공엔진 중심 추진
기존 이차전지 단지와 연계 강화
내달 서울 설명회서 절차 등 안내
공모 2월 27일 마감, 2027년 지정

정부가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가 지정에 나선다. 신규 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차전지 공급망을 전주기로 완결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로봇·방산·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2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최종 지정은 2026년 하반기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지정된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항공엔진(방산) 분야의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한편, 이차전지 분야는 기존 특화단지와 연계해 기초원료 생산까지 포함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하는 공급망 완결형 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이차전지 분야 특화단지는 2023년 7월 청주·울산(셀), 포항(양극재), 새만금(전극체·리사이클링)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주기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추가 지정에 나선다.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전력·용수·도로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신속 처리되는 등 규제·행정 특례가 적용된다. 아울러 국

가첨단전략기술과 연계한 연구개발(R&D) 사업, 실증·시험사업,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정책 금융 및 민간 합동 투자 연계 등 금융 지원도 집중된다.

신청 대상은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이다. 신청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장, 전략산업 관련 기업 등이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과제관리시스템(k-p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접수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특화단지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평가를 진행한 뒤,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중 신규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내년 1월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이번 공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특화단지 지정 요건과 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사립대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IS

17년 만에 등록금 규제 풀어도 상한은 3%

교육부, 대학재정 악화 대응
국가장학금 II 유형 규제 2027년 폐지
AI·디지털 전환 등 혁신 재투자 요구

정부가 사립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등록금 인상과 연계된 일부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학가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와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사립대들은 규제 완화의 실질적 효과가 등록금 인상 허용 범위와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의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지급하지 않던 국가장학금 II 유형 연계 규제가 2027년 폐지될 예정이다. 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정과제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국립대의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된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2012년 도입 이후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만 지급되

면서, 사실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장기간 동결이 이어지며 재정 압박을 버티지 못한 대학들이 늘어났고, 올해는 전국 193개 대학 중 136개교(70.5%)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등록금을 인상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물가를 반영한 사립대의 지난해 실질 등록금은 연 668만원으로, 2011년보다 21.9%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정부 방침을 공식 환영했다.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지난 17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대교협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규제 개선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다만 양 회장은 등록금 인상이 학생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대학의 사회적 책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률과 가계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등록금 책정 △법정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소통 △AI·디지털 전환과 교육환경 개선, 우수 교원 확보 등 교육혁신 분야에의 재투자 원칙을 제시했다.

양 회장은 “앞으로도 대학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 완화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도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 7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로 제한돼, 인상 폭은 약 3%대에 그칠 전망이다.

사립대 한 고위 관계자는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자재 투자나 우수 교원 확보를 고려하면 3% 이상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 불공정행위 ‘최다’

공정위, 유통 납품업체 실태 발표
정보제공수수료, 우회 마진가능 지적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촉비용 전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정보제공수수료를 둘러싼 납품업체들의 불만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25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9개 유통업체, 4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9.0%로 전년대비 3.5%p 상승했다. 편의점

(92.8%), 대형마트·SSM(91.8%), 아울렛·복합몰(90.9%) 등 대부분 업체에서 개선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온라인쇼핑몰은 82.9%로 전체 업체 중 가장 낮았다.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판촉비용 부당전가(6.3%)가 가장 높았고,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대금 지연지급(4.3%)이 뒤를 이었다. 다수의 불공정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최상위 업체로 나타났으며, 판촉비용 전가, 대금 감액, 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배타적 거래 강요,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에서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의 피해 경험이 두드러졌다.

공정위는 특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은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상품 노출이 축소되거나, 광고 강요를 통해 유통업체 마진을 보전하는 등 오프라인 채널과는 차별화된 불공정행위 유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송미령 “내년에도 농산물유통 성과 기대”

농식품부, 농산물유통 혁신대전 개최
(주)미스터아빠·한반도농협 사례 공유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년 농산물유통 혁신대전’을 개최해, 그간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난 9월 농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 이후 가시적 성과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현장에서 힘을 쏟고 계신 유통 관계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농업인, 유통 관계자, 관계부처와 함께 지혜를 모아 가겠다. 내년에도 손에 잡히는 성과를 기대해 달라”고 했다.

올해 농산물유통 혁신기업 대상은 (주)미스터아빠가 수상했다. 미스터아빠는 2020년 설립 후 경남에서 농산물 새벽배송 서비스를 처음 도입해 지역 농가와 슈퍼마켓, 식자재마트, 식당 등을 연결하는 직거래 기반 유통모델을 구축했다.

최우수상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운영 중인 강원 영월 한반도농협이 수상했다. 한반도농협은 입고, 선별 등 전 공정에 RFID(무선주파수 식별)를 도입해 처리물량을 51% 늘리고, 입고 처리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등 유통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올해 처음 진행한 생산자와 구매자 간 교류회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21개 산지 생산자와 아이윌, 오아시스 등 19개 유통업체가 참석해 신규 거래처 발굴을 위한 홍보·상담 등을 진행하며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냈다.

행사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농업인단체, 유통업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역점과제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달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하며(전년동기대비 2.9배) 핵심 유통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근거법 제정안이 이달 4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I 디지털처 신설로 전면적 AI전환 본격화

농어촌공사, KRC-AX 전략 수립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디지털 혁신 선도’를 기치로 내걸고 인공지능전환(AX)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정부의 ‘2030년 AI 3대 강국 도약’ 국정 목표에 발맞춰 ‘KRC-AX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제도 정비 및 업무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우선 AI 전환을 전담할 조직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1월 기존 ‘디지털 혁신처’를 ‘AI 디지털처’로 개편해 AI 총괄 부서로 역할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인공지능 정책 자문기구인 KRC-AI 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AI 기술과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CAIO)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공사는 ‘KRC-AI 윤리기준’을 제정해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위험을 관리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 도입 절차와 위험관리를 체계화한 ‘AI 업무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준·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지원 등 30개 이상의 세분화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실무 적용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업무 시스템 전반에 AI 적용도 확대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이어 ‘삼양1963’으로 국내시장 접수

불닭 브랜드 매출구조 쏠림 우려
프리미엄 국물라면 ‘삼양 1963’
우지 유탕 방식으로 내수시장 성과
반짝 흥행 넘어 매출 다변화 ‘주목’

‘불닭볶음면’으로 전 세계에 매운 맛 열풍을 일으킨 삼양식품이 또 한 번 도약에 나선다. 해외에서는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국물라면 ‘삼양1963’이 예상 밖 흥행을 이어가며 매출 구조 다변화의 실마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삼양식품은 식품업계 최초로 ‘9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며 글로벌 K라면 대표 주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삼양식품은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전년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억7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해 9억불 수출탑을 받았다. 지난해 7억불 수출탑 수상 이후 불과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주력은 단연 불닭볶음면이다. SNS를 통해 확산된 ‘매운맛 챌린지’를 기점으로 불닭 브랜드는 미국·유럽·아시아 전반에서 메가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현재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은 80%를 웃돈다. 진출 국가는 100여 개국에 달한다.



삼양식품이 성수동에서 진행한 삼양1963 옥외광고.

/뉴시스

특히 미국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3분기 기준 미국 법인 삼양아메리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약 1억1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월마트·코스트코 등 주류 유통 채널에 이어 HEB, 샘스클럽까지 입점이 확대되며 판매 저변이 넓어졌다.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고환율 부담에도 삼양식품의 실적은 견고하다. 현지 판매 가격 인상과 생산 효율화로 수익성을 방어하는 데 성공한 것.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4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6650억원, 영업이익 15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71% 증가할 전망이다. 밀양2공장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며 글로벌 수요 증가를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고정비 부담도 낮아지고 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닭 브랜드에 지나치게 쏠린 매출 구조에 우려의 시선도 존재했다. 이에 삼양식품은 ‘제2의 불닭 개발’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카드가 프리미엄 국물라면 ‘삼양1963’이다. 삼양식품

에 따르면 삼양1963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700만 개를 돌파했다. 이는 삼양라면 월평균 판매량의 80% 수준으로 기존 제품 대비 약 1.5배 높은 가격에도 이례적인 반응이다.

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이 불닭 브랜드를 축으로 글로벌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와 함께 프리미엄 국물라면 ‘삼양1963’이 내수 시장에서 성과를 내면서 그간 지적돼 온 불닭 중심의 매출 구조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이익 안정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제품 흥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양1963은 과거 삼양라면의 핵심이었던 우지 유탕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동물성 우지와 식물성 팜유를 배합한 ‘골든블렌드 오일’을 적용했다. 단순 볶고 제품이 아니라 창업 정신의 복원이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점도 소비자 반응을 자극했다.

출시 전부터 온라인에서는 ‘우지라면 부활’ 요구가 이어졌고, 출시 이후 관련 영상 콘텐츠 누적 조회수는 약 8000만 회에 달한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크

리에이터 자발 콘텐츠로, 자연스러운 바이럴 효과도 확인됐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오너 3세 전병우 전무가 있다. 전 전무는 불닭 글로벌 프로젝트와 해외 사업 확장, 중국 자싱공장 설립 등에서 성과를 냈다.

삼양식품은 최근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전병우 최고경영책임자(COO)를 전무로 승진시키며 세대교체에 속도를 냈다. 입사 6년 만의 초고속 승진이다.

앞서 선보인 ‘뽕뽕’과 ‘뽕스랩’ 등 신규 브랜드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삼양1963’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낸 셈이다. 이번 신제품이 반짝 흥행을 넘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삼양1963’이 출시 직후부터 가파른 판매 상승세를 보이며 단기간에 주요 유통채널 판매 순위상 위권에 진입했고, 프리미엄 라면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700만개 판매량을 기록하며 제품력과 소비자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해 ‘삼양1963’의 브랜드 영향력과 마케팅 확대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해피포인트 앱으로 연말파티 준비하세요”

SPC 섹타나인 ‘해피팝업’ 기획전
오는 21일까지 7개 브랜드 행사
케이크 등 최대 50% 할인 혜택

SPC 섹타나인이 해피포인트 앱에서 홀리데이 시즌 케이크, 굿즈 등을 혜택가로 제공하는 기획전 ‘해피팝업 (HAPPY POP-UP)’을 펼친다.

해피팝업은 지난 7월부터 해피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진행되는 SPC 브랜드 통합 프로모션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서비스 혜택을 큐레이션 형태로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해피팝업’은 오는 21일까지 단일 주일간 진행된다. 파리바게뜨·SPC삼립·베스킨라빈스·던킨파스쿠찌·쉐이크쉑·잡

바등 7개 주요 브랜드가 총출동하여 연말 파티 아이템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크리스마스과 연말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케이크를 스마트하게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모았다.

파리바게뜨 2025 홀리데이 시즌의 대표 케이크 ‘베리밤(BERRY BOMB)’은 20% 할인, 베스킨라빈스 ‘골든 브릴레 판타지’를 포함한 시즌 케이크 4종은 최대 25% 혜택을 증정한다. ‘윈터랜드 트리’를 포함한 파스쿠찌 홀 케이크 12종은 1만원 할인되며, SPC삼립이 포켓몬 코리아와 함께한 ‘피카츄의 초코바나나 몬스터볼 케이크’에는 20% 혜택이 적용된다.

케이크 외에도 겨울 간식과 라이프스

타일 굿즈 할인도 제공한다. 삼립호빵은 30%, 영국 헤리티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헌터’와 손잡고 출시한 베스킨라빈스 겨울 굿즈(이어머프·블랭킷)는 5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사이즈 아이스크림 50%, 셰이크쉑 1만원 이상 구매 시 40% 할인이 준비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피포인트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섹타나인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해피포인트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 역대급 기획전 ‘해피팝업’을 진행한다”며 “특별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풍성한 연말 파티를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GS25, 오는 29일 ‘내일반값·내일택배’ 론칭

오후 6시 이전 접수 시 다음날 도착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이달 29일부터 ‘내일반값’과 ‘내일택배’ 서비스를 신규 론칭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익일 배송 보장’이다. 오후 6시 이전에 접수하면 다음 날 바로 도착하는 시스템으로, 빠르게도 합리적인 비용을 원하는 소비자의 틈새 수요를 겨냥했다. 수거와 배송은 ‘딜리박스 중앙’이 전담하며, 명절을 제외하고 주말 포함 주 7회 운영되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서비스는 수령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내일반값’은 기존 반값택배와 같이 GS25 점포에서 수령하는 방식이다. 세 번의 합이 80cm 이내, 무게 5kg 이하인 상품을 보낼 수 있으며 운임은 ▲500g 이하 2400원 ▲1kg 이하 2800원 ▲5kg 이하 3200원이다. 기존 택배보다 저렴하면서도 일반 반값택배보다 빠른 속



GS25는 이달 29일 다음날 도착하는 내일반값, 내일택배 서비스 2종을 선보인다. /GS25

도가 장점이다.

‘내일택배’는 일반 택배처럼 고객이 지정한 장소(집 등)로 배송되는 서비스다. 세 번의 합 160cm 이내, 무게 20kg 이하 상품까지 접수 가능하며, 최저 3500원(350g 이하)부터 최대 9100원(20kg 이하)의 요금에 적용된다. 두 서비스 모두 우선 서울 지역 점포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향후 전국으로 서비스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CJ프레시웨이, ‘롱고바디’ 유통 확대

이탈리아 프리미엄 브랜드
식자재 유통 경쟁력 강화

CJ프레시웨이가 이탈리아 프리미엄 브랜드 ‘프라텔리 롱고바디(이하 롱고바디)’의 유통 확대에 나선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멀티채널 역량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식자재 유통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롱고바디는 1988년 설립된 이탈리아 토마토 가공식품 브랜드로 고도화된 생산 설비와 유통 이력 추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다. 국내에서는 CJ프레시웨이가 수입·유통을 맡고 있다.

CJ프레시웨이가 올해 1~3분기 운영

한 롱고바디 상품군의 누적 유통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다. 고객 수는 올해 11월 기준 작년 대비 약 5배로 늘었다. CJ프레시웨이는 2024년 2월 롱고바디의 국내 유통권을 확보한 이후 외식 프랜차이즈와 레스토랑 중심으로 유통을 늘려 왔으며, 최근에는 리테일과 온라인까지 판로를 넓혀 B2B와 B2C 시장을 아우르는 구조를 구축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1월 코스트코에 롱고바디를 입점시키고 10월부터는 GS리테일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다. 각각 800g 4개입 번들 상품과 400g 단포를 공급해 가정용 식자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자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도 가정용 상품 구색을 넓



프라텔리 롱고바디 토마토홀. /CJ프레시웨이

혀가고 있으며, 외식업장에는 2.55kg 대용량 상품을 공급한다. 채널별 맞춤 가격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조달·재고·물류를 통합 관리해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상품 라인업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운영 중인 품목은 15종이다. CJ프레시웨이는 토마토홀을 비롯해 올리브오일, 콩가공품, 파스타소스 등 롱고바디의 프리미엄 식자재 상품군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G마켓, 광고영상 누적 조회수 1.2억 돌파

‘韓 디지털 광고대상’ 금상 수상

G마켓은 지난 9월부터 진행한 브랜드 광고 캠페인의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1억2000만회(12월 기준)를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1일 열린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에서는 디지털영상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캠페인은 김경호, 박완규, 설운도, 김중서, 민경훈, 에일리 등 장르별 내로라하는 가수들을 기용해 그들의 대

표곡 가사를 쇼핑 관련 언어유희로 비튼 것이 특징이다. 지난 4개월간 ‘G락페’와 ‘박스마일데이’ 등 대형 프로모션 기간에 맞춰 총 20여 편의 시리즈 영상이 공개됐다.

G마켓 측 자료에 따르면 광고의 인기는 실제 매출 증대에도 이어졌다. 이달 초 진행된 ‘12월 G락페’ 기간 동안 에일리 광고가 화제를 모으며 관련 카테고리 거래액은 평소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고, 사이트 유입도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손종욱 기자

‘케이캡’ 일본 사업권 확보… R&D 강화로 글로벌 진출

HK이노엔 라퀼리아와 R&D 협력
日 내 개발·제조·판매 권한 확보
미국 FDA 승인 신청·中 수출 추진
케이캡, 전문의약품 매출 20% 견인

HK이노엔이 대표품목인 국산 신약 ‘케이캡’ 일본 사업권 확보와 일본 제약 회사 라퀼리아 지분 인수를 통해 글로벌 핵심 시장 공략과 연구개발(R&D) 기반 강화에 나섰다.

1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은 ‘케이캡’ 글로벌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케이캡은 칼륨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HK이노엔의 대표 품목이자 제30호 국산 신약이다.

이날 HK이노엔은 일본 신약개발 기업 라퀼리아로부터 케이캡 일본 사업권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라퀼리아는 2010년 HK이노엔에 케이캡 물질기술을 이전한 바 있으며 이번 인수 계약으로 HK이노엔은 일본 내 케이캡 개발, 제조, 판매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중국, 미국 등에 이어 일본으



경기 성남 판교의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HK이노엔 스퀘어’ 전경. /HK이노엔

로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해 글로벌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일본 소화성 궤양양제 시장은 약 2조 원 규모로 세계 3위에 달하는 대형 시장이다. 현재 일본에서 케이캡은 출시되지 않았으나 이번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케이캡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에도 도전한다. HK이노엔은 올해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케이캡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2022년 9월 도입한 미국 임상 3상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쳤다. 미란성 식도염,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미란성 식도염 치료 후 유지 요법 등 3개 임상3상에서 통계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중국에서는 이미 2022년부터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적응증 추가, 제형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사제 개발을 위한 임상에 진입해 있다. 또 HK이노엔은 올해 들어 북아프리카, 인도 등 신흥 국가로 케이캡 수출국을 다변화하기도 했다.

케이캡을 포함해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HK이노엔의 실적 성장도 전망된다. HK이노엔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7713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70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에서 전문의약품 부문의 비중은 93%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20%는 케이캡 매출이다.

이와 함께 HK이노엔은 후속 신약개발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HK이노엔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라퀼리아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라퀼리아 주식 155만5900주를 취득해 5.98%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HK이노엔은 앞서 올해 3월 라퀼리아 주식 259만2100주를 취득해 10.61%의 지분율로 라퀼리아 1대 주주에 올랐다. 이번 지분 추가로 HK이노엔은 총 15.9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무엇보다 라퀼리아는 현재 소화기 질환, 통증, 항암 분야를 포함한 18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췄다.

HK이노엔 광달원 대표는 “이번 계약은 양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해 혁신 신약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케이캡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라퀼리아와 협력해 추가 신약 파이프라인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대상펫라이프 ‘대상펫돌’

‘댕냥이’ 간식 프로모션

뽀시래기 인기 제품 최대 61%

대상펫라이프의 공식 통합 온라인몰 ‘대상펫돌’이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메리선돌 반짝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보양죽과 간식 등을 최대 61%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번 프로모션은 대상펫라이프의 대표 브랜드 ‘닥터뉴토(Dr. nuto)’와 ‘뽀시래기’를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닥터뉴토’는 맞춤형 영양소 설계로 반려동물의 단백질 섭취에 도움을 주는 인기 제품 ‘탄단지 프로틴 케어 펫밀크’ 등 6종을 최대 61% 할인가에 선보인다. ‘뽀시래기’는 급속 동결 건조로 원물의 영양소 손실을 줄인 ‘든든한 동결 건조 간식’ 등 인기 제품 10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경보제약, 전임상부터 완제품까지 ADC CDMO 구축

용인 기흥에 ADC 연구센터 개소
전주기 생산으로 기술 이전 안정
아산 2027년 완공, 임상·제품 공급

중근당 계열사 경보제약은 최근 용인 기흥에 전임상 연구용 생산 기지 ‘ADC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경보제약 ADC 연구센터는 약 885평 규모로 마련됐고 오는 2026년 초부터 생산을 시작한다. 특히 전임상에 쓰이는 원료의약품(DS)부터 국내 최초 완제품(DP) 생산 시설까지 전주기에 걸쳐 항체·약물접합체(ADC) 위탁개발생산(CDMO) 시스템을 갖췄다.

경보제약은 ADC 연구센터에서 ADC 공정개발과 대량생산을 위한 공정 확



경보제약 ‘ADC 연구센터’ 개소식에 주요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사 및 바이오벤처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영 경보제약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중근당

대 등을 통해 ADC 플랫폼을 체계화하고 고객사로의 기술 이전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원료의약품 파일럿 생산설비는 일회용 방식과 다회용 방식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했으며, 완제품 생산설비는 바이오알 총전부터 동결건조까지 모든 공정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밀폐형으로 운영해 품질과 안전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충남 아산에 약 855억원을

투자해 건설하고 있는 ADC 공장이 완공되면 2027년 말부터는 임상 1, 2, 3상을 위한 시료와 완제품 모두 생산 가능하게 되어 전임상 연구개발부터 상업화까지 ADC 의약품 원스톱 공급망을 확보하게 된다.

김태영 경보제약 대표는 “ADC 연구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임상을 위한 원료의약품부터 완제품까지 공급하는 ADC CDMO 시설”이라며 “ADC 생산공장과 함께 원스톱 공급망을 구축해 국내 ADC 개발사와 바이오벤처들이 중국, 미국, 유럽 등에서 임상 시료를 제작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속은 촉촉, 겉은 보송”

‘콩콩 블러셔’ 선보여

아모레퍼시픽은 메이크업 브랜드 에뛰드에서 겉은 보송하고 속은 촉촉하게 밀착되는 ‘콩콩 블러셔’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콩콩 블러셔는 리퀴드 블러셔 제품으로, 내장된 스펀지 팁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두 볼에 ‘콩콩’ 찍어 속광 치즈를 연출할 수 있다. 높은 피부 밀착력과 자연스러운 발색을 갖춘 제형이 특징이다. 또 여러 리어리한 색상부터 분위기를 더해주는 진한 색상까지 총 5가지로 구성됐다.

에뛰드 브랜드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완성도 있는 제형과 트렌디한 컬러, 탁월한 밀착력에 중점을 두면서 차별화된 메이크업을 선보인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아토피 치료제 ‘엘리텔 크림’ 국내 독점 유통

동아에스티 한국메나리니와 협력

동아에스티는 한국메나리니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텔 크림’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엘리텔 크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메나리니가 도입한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다.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의 2차 치료제로 단기 치료 또는 간헐적 장기 치료에 쓰이는 외용제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메나리니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엘리텔 크림 국내 수입공급을 담당하고 동아에스티는 국내 홍보·마케팅 및 종합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대상 유통·판매·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양사는 각 사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

로 국내 시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확대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배한준 한국메나리니 사장은 “한국메나리니는 글로벌 메나리니 그룹의 품질 기준에 따라 국내 환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책임을 갖고 있어 이번 파트너십은 그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단계”라며 “동아에스티와 함께 엘리텔 크림의 접근성과 가치를 더욱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동아에스티의 피부과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보다 많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엘리텔 크림이라는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정관장, GLPro로 혈당관리 시장 공략

인슐린 저항성 개선 확인

활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체중 증가와 함께 혈당 관리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이런 가운데 KGC인삼공사 정관장의 혈당 관리 전문 브랜드 ‘GLPro(지엘프로)’가 혈당과 체지방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관장에 따르면 GLPro는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3억 원을 기록했다. 혈당 관리와 체지방 조절을 동시에 겨냥한 기능성이 소비자 수요와 맞물리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GLPro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을 인정받은 정관장 홍삼(KGC05pg)을 주원료로 한다. KGC인삼공사 연구진

이 40세 이상 성인 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체적용시험에서 섭취군은 공복 혈당과 식후혈당, 당화혈색소가 감소했고 인슐린 저항성은 개선, GLP-1 수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홍삼은 면역력과 피로 개선 중심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혈당 급상승 완화와 대사 개선 효과가 부각되며 혈당 관리 소재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식후 졸림과 피로를 자주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GLPro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소비자층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 체지방 관리 기능을 강화한 ‘GLPro 더블컷’의 남성 구매 비중은 약 43%에 달하며, 20~40대 신규 고객 유입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풀무원다는

단백질 요거트 ‘요프로’

운동·일상케어 건강 루틴

풀무원다는이 프리미엄 고품량 프로틴 요거트 브랜드 ‘요프로(YoPRO)’를 국내에 론칭하며 발효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발효유 전문기업 풀무원다는은 프랑스 다논이 전 세계 23개국에서 선보이고 있는 프리미엄 고품량 프로틴 요거트 브랜드 ‘요프로’를 국내에 론칭한다고 15일 밝혔다.

‘요프로’는 100년 발효기술을 가진 세계 판매 1위 기업 다논(Danone)의 프리미엄 고품량 프로틴 요거트 브랜드다. 2015년부터 각 나라별 소비자 특성에 맞게 ‘YoPRO’, ‘GetPRO’, ‘HiPRO’, ‘OIKOS’ 브랜드로 글로벌 23개국에서 선보이고 있다.

/신원선 기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언어를 배우다 커리어가 되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12. 1(월) ~ 2026. 1. 15(목) / 2차: 2026. 1. 28(수) ~ 2. 12(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기보-KOICA, 소셜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기보는 KOICA와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KOICA 본사에서 'CTS참여 소셜벤처기업의 글로벌 임팩트 확산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오른쪽)이 장원삼 KOICA 이사장과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LG전자, 서울 성수동서 '앰버서더 데이' 진행

LG전자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 성수동 스테이지 엑스 성수 차붐에서 '앰버서더 데이'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와 앰버서더들이 함께 만든 브랜드 소통 공간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창작물을 선보이고, 플리마켓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도 연말의 따뜻함을 나누고자 마련된 행사다. /LG전자



LG U+, 구세군과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

LG유플러스가 연말을 맞아 구세군과 함께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직영 매장에서 진행되는 '구세군 QR코드 자선냄비'는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자선냄비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스캔하면 쉽고 빠르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캠페인이다. /LG유플러스



귀뚜라미보일러, '韓 100대 브랜드' 13년 연속 선정

귀뚜라미보일러가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타이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13년 연속 선정됐다. 15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귀뚜라미보일러는 지난해 보다 4계단 상승한 종합 순위 44위에 올랐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50위 내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순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귀뚜라미보일러



BNK부산은행, 연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BNK부산은행은 동구 매죽지마을에서 '부산은행 재능기부봉사대 연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BNK부산은행 소속 재능기부 봉사대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매죽지마을 골목 곳곳으로 직접 연탄을 운반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BNK부산은행

(주)한화, CDP 기후변화대응 평가 2년연속 최상위 등급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지난해 이어 '리더십 A' 등급 획득
수자원관리 부문서도 '리더십 A'

(주)한화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2025년 기후변화대응 부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CDP 평가 최상위 등급이다. 또한 수자원관리 부문은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해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CDP 평가는 ▲기후변화 ▲수자원



2025 CDP A List 뱃지. /주한화

▲산림 등 3개 분야로 구성되며, 기업의 전략과 목표, 실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리더십 A, 리더십 A-,

매니지먼트 B, 매니지먼트 B- 등 총 8개 등급을 부여한다.

(주)한화는 지난해 K-RE100(한국형 RE100)에 가입해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5년부터는 직접전력거래(PPA) 방식으로 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고 있으며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활동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 리스크 분석과 물 스트레스 분석, 자연자본 영향평

가 등을 통해 전사 차원의 중장기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환경경영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주)한화 관계자는 "2년 연속 CDP 최상위 등급 획득은 (주)한화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올해는 기후변화대응 부문뿐만 아니라 수자원관리 부문까지 높은 성과를 거둬 더욱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ESG 경영 실천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삼표그룹, 창립기념일 맞아 나눔활동

2주간 릴레이 사회공헌 캠페인

삼표그룹이 창립기념일을 맞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 곳곳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은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전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릴레이 사회공헌 캠페인 '삼표와 함께하는 Blue Weeks(블루위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블루위크 활동에는 삼표산업, 삼표시멘트, 에스피네이저 등 그룹 주요 계열사가 차례로 참여해 독거 어르신, 장애인 가정, 자립준비청년 등 주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에스피네이저 임직원들은 지난달 18일 포항의 무료급식소 '사랑나눔의 집'을 찾아 독거 어르신 90여 명에게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또 직접 준비한 잡곡세트를 전달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에 힘을 보탰다.

삼표시멘트는 강원도 삼척시에서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를 진행했다.

대형 세탁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 아동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이불 등을 수거·세탁·배달했으며, 건강식품 등 생활 지원 물품도 함께 전달했다.

블루위크의 마지막 주에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직무멘토링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경영관리, 인사, 총무 등 다양한 직무의 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진로와 취업 고민을 함께 나누며 현실적인 조언과 정서적 지지를 전했다.

아울러 삼표그룹 임직원 봉사동호회 '블루허그'는 자립준비청년 약 30명을 위해 취업 응원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서울시교육청, 홍보 우수사례 장관 표창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홍보 우수사례'에서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교육부 홍보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3년 연속 수상은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서울교육 홍보의 지속성과 진정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신체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고정관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캠페인은 ▲맞춤형 점자 교본 및 오디오북 제작 ▲한국체육대학교 전문가의 품새 지도 ▲한빛맹학교 발표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점자책을 읽는 모습. /서울시교육청

회를 통한 실제 무대 경험 등을 패키지로 지원했다. 특히 학생들이 손끝으로 태권도 동작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점자 교본은 단순한 홍보 성과를 넘어, 특수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 자료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수상작인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의 점자 교본과 오디오북을 전국 시각장애 특수학교와 관련 기관에 배포해, 캠페인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

홈앤쇼핑, CCM 공정위원장 표창 수상

〈소비자중심경영〉

‘모든일의 최우선은 고객’ 원칙으로 올해 동종업계 중 유일 수상 성과

홈앤쇼핑이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15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22년에 첫 CCM 인증을 획득한 이후 2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 중심의 경영 문화 내재화와 운영 개선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동종업계에서 유일하게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모든일의 최우선은 고객'이라는 원칙 아래 다양한 소비자중심경영 활동을 실천한 점이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회사는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조직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고고객책임자(CCO)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CCM 위원회를 운영하며 전사적인 개선 활동과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자체 제작



홈앤쇼핑 김재진 경영부부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1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서울 '2025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공정위원장 표창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앤쇼핑

한 CCM 홍보 영상을 홈쇼핑 채널을 통해 꾸준히 송출해 소비자 인식 제고와 대외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홈앤쇼핑은 또 '상담원의 행복이 고객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신년아래 고객센터 근무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 강서구 및 부산 연제구 지역 단체와 협력해 상담원 정신건강 증진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마음건강 친화기업 인증'도 획득했다. /김승호 기자

바이오協, 'AI 신약개발' 정책보고서 발간

국내 현주소 진단·산업화 전략 제시
규제 등 종합적인 성장방향 탐색

한국바이오협회는 인공지능(AI)이 신약개발 전 주기를 혁신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함에 따라 'AI 기반 신약개발 산업화 전략'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내 AI 신약개발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산업화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성과 중심의 논의를 넘어 규제·데이터·인프라·투자·인재를 아우르며 종합적인 성장 방향을 탐색한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AI는 신약 후보물질 발굴, 약물 설계, 전임상·임상,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적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희귀

질환 치료제, 맞춤형 의약품, 디지털 치료제 등 첨단 분야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와 창의적 알고리즘 기반의 AI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AI 도입과 함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한다. AI 신약개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를 병행하는 것이다. 글로벌 산업계 역시 AI 신약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후보물질 확보, 플랫폼 구축, 초고속 임상 진입 등 성공 사례를 내놓고 있다.

반면 국내는 AI 신약개발 관련 투자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비 기술력과 산업화 측면에서 아직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창하 기자 mlee236@

인사

◆BS그룹 ◇상무보 △박진 △최권 ◇부사장 △문병철 ◇상무이사 △김민규 △최현성 △서정국 △김윤성 △김원국 ◇상무보 △박준규 △이현석 △심재형 △박은상 △이가람 △장광모

부음

▲전길현 씨 별세, 전택수(전북일보 편집국 총괄부장)씨 부친상 = 14일 오후 9시, 전주효사랑가족장례문화원 특5호, 발인 17일 오전 10시. 063-250-4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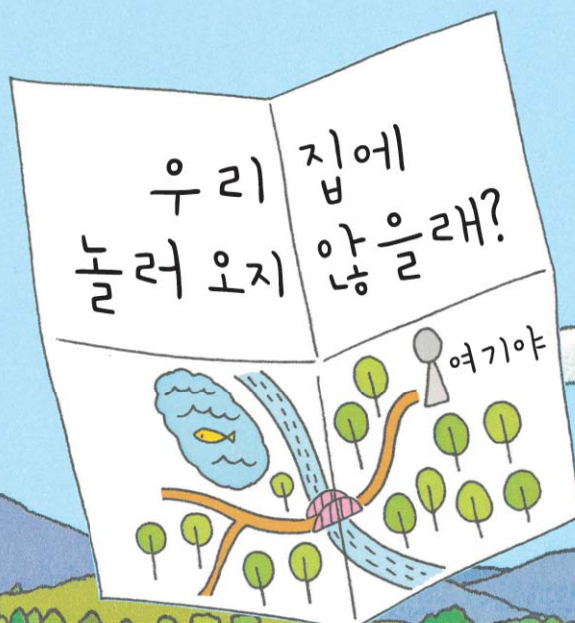
20개월 이상 관람가

더 강력하게 돌아왔다! 20만 관객 증명!
기발한 상상력의 이머시브 뮤지컬

뮤지컬

100

총짜리 집



©Toshio IWAI/ KAISEI-SHA

2026.01.09(금) ~ 03.02(월)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 대극장

크리스마스마켓 즐기고, 특별공연 감상도…

한강에 펼쳐진 ‘로맨틱 크리스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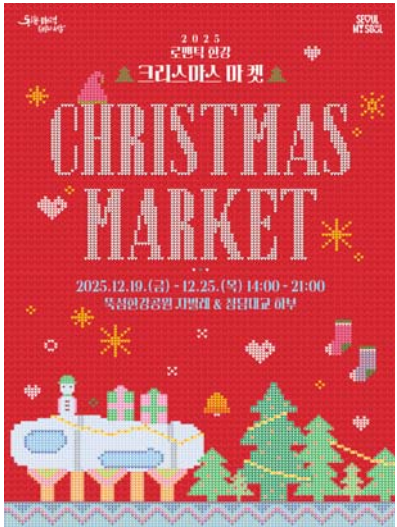
서울시, 19일부터 한강 겨울축제
독섬한강공원, 마켓·푸드·포토존
반포한강공원, ‘봄’ 컨셉 체험공간
세빛섬, 연날리기 ‘한강바람축제’

한강을 배경으로 한 겨울 축제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을 비롯해 ‘한강페스티벌_겨울’이 열리며,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한강에서 계절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작년 63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발걸음한 2025 한강겨울축제를 올해는 독섬·반포한강공원 등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5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14시부터 저녁 9시까지 독섬한강공원 자벌레와 청담대교 하부 일원에서 개최된다.

‘즐거움 가득한 놀이터’를 컨셉으로 한 이번 행사는 ▲마켓존(크리스마스 소품 판매 상점 40여 개) ▲푸드존(떡거리) ▲포토존 등으로 구성된다.



2025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포스터

올해 마켓존은 특별하게 독섬한강공원의 자벌레 1층에 마련된다. 푸드존은 청담대교 하부 일원에서 운영되며, 포토존은 독섬한강공원 야외와 독섬 자벌레 실내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규모가 가장 큰 ‘로맨틱 포레스트’는 청담대교 교각에 설치되는 루미나리에와 그 아래 쿠키하우스를 배경으로 총 7개의 트리가 숲을 표현한다.

한 독섬 자벌레 실내의 ‘체험존’에서는 도자기 오너먼트, 키팅 만들기 등 총 10개의 프로그램이 7일간 총 30회 열린다. 19일 오후 4시 30분, 24일·25일 저녁 7시에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 등이 선보이는 ‘특별공연’도 열린다.

‘8월의 크리스마스’ 표현처럼, ‘한겨울에 먼저 찾아온 이른 봄’을 담아낸 감성 공간인 ‘봄ON한강’은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앞 둔치에서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이 공간은 봄꽃 돛, 쉼터 돛, 포토 돛 등 3종류의 체험형 돛 공간으로 구성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붉은 말의 해’ 2026년이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겨울철 인기 민속놀이 중 하나인 연날리기 ‘한강바람축제’도 27일, 28일 양일간 세빛섬 앞 수변무대에서 개최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겨울 한강에서 만나는 특별한 축제를 놓치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온기 있게 마무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주벚꽃마라톤대회, 내년 4월 4일 개막

보문단지서 개최… 18일 선착순 접수

경주시는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를 내년 4월 4일 토요일 오전,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보문호수와 도심 문화유산, 벚꽃길이 어우러진 코스를 따라 달리는 국내 대표 봄철 마라톤 행사로, 3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국내외 마라토너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와 맞물려 ‘봄의 경주’를 상징하는 스포츠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시는 벚꽃 시즌 성수기에 따른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쾌적한 대회 운영을 위해 내년 대회에서도 폴코스는 운영하지 않고 하프코스·10km·5km 등 3개 부문만 진행하기로 했다.

참가 접수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1만 5000명이다.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매년 외국인 참가자 비중이 높은 국제 마스터스 대회로도 잘 알려져 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영양군, 내년부터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

내년 1월 5일부터 무임운행

영양군은 2026년 1월 5일부터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영양군민이라면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농어촌버스(영양동행버스)를 무임으로 이용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시행 중인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은 어르신 만족도

100%, 일반 군민 선호도 84%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영양군은 이번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으로 군민들의 이용 만족도 및 이용 패턴 분석이 가능해지는 만큼, 향후 대중교통계획 수립과 노선 개편 등에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영양군은 2026년부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계층별 환급률에 따라 대중교통의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도 시행 예정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자치구 관리 국가유산, 서울시가 직접 챙긴다

예산·관리인력 부족 등 어려움에
서울국가유산돌봄센터 운영·지원
서울시 전역 ‘총괄관리체계’ 구축

그간 서울 각 자치구가 관리하던 국가유산을 앞으로는 서울시가 직접 돌본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16개 광역시·도는 국가유산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다.

국가유산 소유자·관리자(단체) 또는 자치구가 맡는 국가유산 보존 관리를 광역시·도가 맡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유산 관리에 빈틈이 생겼다. 예산 부족과 상주 관리 인력 부재 및 노령화 등 이유로 소유자·관리자가 관리상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 역시 부족한 예산, 전문성 미흡, 관리 인력 부재 등을 토로했다고 한다.

자연 재난이나 재해, 사고 때 자치구 전문 조직과 인력이 부족해 선제적 대응(긴급 조사, 응급조치, 복구 지원 등)이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법률이 개정돼 광역시·도가 국가유산 보호·관리에 참여할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은 2020년 6월 문화유산법을 개정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국가유산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광역시·도의 국가유산 보호·관리 직접 참여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유산 돌봄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대상을 늘려 서울 시내 국가유산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

기로 했다.

서울국가유산돌봄센터를 운영하고 돌봄 사업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이 인력은 국가유산 감시, 일상 관리, 경미 수리 등을 실시한다. 재난과 재해로 국가유산 피해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서울시 전역(25개 자치구)에 있는 국가유산은 768개소(무형, 동산문화유산 제외)고 이 중 올해 돌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유산은 524개소다.

앞으로 시는 서울국가유산돌봄센터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국가유산의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유산 보호·관리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외국인 81만명… “정책 변화 필요”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 56.6%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이 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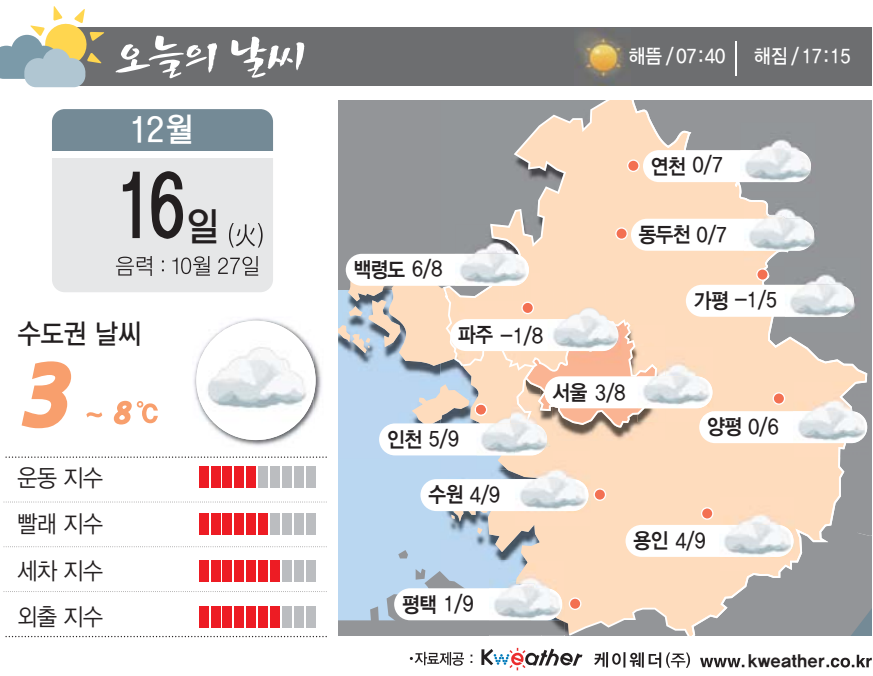
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정주형 이민자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차별 해소, 경제·사회적 참여,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인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홍콩 법원, 반중 언론사주 지미 라이 유죄 판단…무기징역 가능성
▲중국 11월 산업·소비·투자 동반 둔화…실업률은 5.1% 유지 /사진 뉴시스

▲트럼프, 시리아 미군 피격에 “큰 피해 줄 것”…재차 보복 예고
▲中, 이와사키 전 日 통합막료장 제재…대만 정부 고문 말아

▲중국,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장관급 아닌 국장급 파견
▲日훗카이도에 폭설·눈보라로 교통 마비…항공·열차 결항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이어
‘삼양1963’ 돌풍
나

metro®

Life

HK이노엔
국산신약 ‘케이캡’
일본 사업권 확보
L2



생애 첫 저축부터 노후의 버팀목까지... 희망으로 이어진 동행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KB라이프

KB라이프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를 미션으로 내건 KB금융그룹의 생명보험사다. 지난 2023년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이 합쳐 새 출발한 뒤 ‘최고의 인재와 담대한 혁신으로 가장 신뢰받는 평생 행복파트너’를 내세운다. 보험을 넘어 노후·자산관리·라이프케어까지 고객의 삶 전반을 함께 설계하는 라이프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이 비전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고객과 이웃 곁에서 포착되는 장면들 속에서 드러난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췄던 시기, KB라이프의 연금보험은 고객에게 마지막 버팀목이 됐다. 지난 7월 ‘2025KB라이프 파트너데이’에서 28년차 고객 김동섭 씨는 “연금보험 덕분에 코로나 위기를 견딜 수 있었다”며 “이제는 청소년 멘토링과 무료 법률상담으로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28년간 인연을 이어온 그는 KB라이프가 말하는 ‘평생 행복파트너’의 의미를 보여줬다.

◆ 놀이처럼...아이들의 첫 금융 습관

KB라이프는 미래세대를 위한 금융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꿈나무마을 ‘파란꿈터’를 찾아가는 경제교실에선 보육시설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용돈 관리와 소비 계획 세우기 등 기초 경제 개념을 다뤘다. 아이들은 보드게임과 퀴즈를 통해 저축과 소비,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나만의 용돈 계획표를 작성해 ‘돈과 친해지는 첫 경험’을 했다.

서울 신림중과 맺은 ‘1사1교 금융교육’도 대표 프로그램이다. KB라이프 임직원과 라이프파트너는 1학년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소득·저축·투자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행복 요소 찾기 빙고’와 보드게임으로 흥미를 더했다. 딱딱한 금융지식을 주입하기보다 아이들이 일상 속 선택을 떠올려 스스로 사고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KB라이프는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똑똑하고 건전한 금융 생활습관

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명을 잇는 기증, 국경 너머 나눔

‘생명존중’은 KB라이프 사회공헌의 또 다른 축이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임직원·라이프파트너를 대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1300여명이 기증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27명이 실제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재단은 이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아 “생명보험이 가진 본연의 가치를 사회 곳곳에 나누는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아카데미’도 빼놓을 수 없다. 임직원과 라이프파트너 21명이 한 해 동안 27회의 강연을 열고, 413명이 참여해 재단의 1대 1 매칭을 더한 기부금 4530만원을 마련했다. 2010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누적된 기부금은 약 8억 9000만원, 참여 임직원과 라이프파트너·외부 강사는 290명에 이른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고객 유자녀와 라이프파트너로 구성된 ‘KB라이프 해외봉사단’의 활동에 쓰인다. 봉사단은 내년 초 인도네시아 희망학교를 찾아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벽화 그리기와 플로깅을 통해 포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 시니어와 이웃...일상의 온도를 높인다

시니어와 지역 이웃을 위한 돌봄 활동 역시 활발하다. KB라이프는 계열사인 KB골드라이프케어가 운영하는 시니어 전문 요양시설 ‘위례 빌리지’를 찾아 공연장 아동을 돕고 공예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임직원들은 어르신들과 함께 ‘나비 춤대’를 만들며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시간을 나누고 눈을 맞추는 ‘정서 돌봄’에 방점을 찍은 활동이다.

강남구에서는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겨울 맞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임직원 9명이 방한용품 꾸러미를 직접 포장해 전달하고, 창문에 단열재를 부착해 난방비 부담을 덜었다. 2인 1조로 나선 가정 방문에서는 말벗 봉사 안부 확인이 함께 이뤄졌다. “겨울이 될 외롭다”는 어르신들의 반응은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KB라이프 자원봉사 교사들이 신림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이 KB골드라이프케어 ‘위례 빌리지’ 요양시설을 방문해 공예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KB라이프

보험 넘어 노후·자산관리·케어까지 고객의 삶 함께 설계 ‘라이프 플랫폼’

아동·청소년에 건강한 금융습관 전파 임직원,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펼쳐 기부문화 확산 ‘나눔 아카데미’ 강연

시니어·지역이웃 찾아 돌봄봉사활동 소비자의 날 맞아 소비자 보호 캠페인 연령대별 의견 반영한 서비스 개선도

◆ ‘세상을 바꾸는 금융’ 완성

거리 환경을 지키는 활동도 눈에 띈다. KB라이프 임직원 150여명은 ‘KB라이프 플로깅 데이’를 열고 강남대로 일대 도로와 공원, 놀이터, 우수관 주변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맞춰 진행된 이 활동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도시의 얼굴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소비자보호와 고객 의견 반영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KB라이프는 소비자의 날을 맞아 사육 앞에서 임직원들에게 ‘소보로(소비자보호로 가는 길)’ 빵을 나눠줘 소비자권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MZ세대와 시니어 고객으로 구성된 고객패널 ‘KB스타지기(知己)’는 온라인보험 가입 여정, 시니어 전용 웹서비스, 요양·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 의견을 제시해 왔다. ‘라이프를 나뉘답게’라는 슬로건처럼, 고객의 삶과 목소리가 상품과 서비스에 반영되는 구조다.

KB라이프 관계자는 “고객 중심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고객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며 “이번 KB스타지기(知己)에서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객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라이프타워에서 ‘조혈모프렌즈 5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기형서 KB라이프 소비자보호본부 부사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제4기 고객패널 KB 스타지기(知己)’ 해단식에서 고객패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메트로 한줄뉴스



▲누적 연봉 1900억 추신수 “명예의 전당이면 재산 바꿀 수 있다”

▲빙속 김민선, 4차 월드컵 500m 2차 레이스 동메달...시즌 첫 포디움 /사진 뉴스스

▲‘서툼글 여제’ 안세영, 왕중왕전서 ‘역대 최다승’ V11 도전

▲김은지, 오유진 꺾고 난설헌배 여자바둑대회 4연패 달성

▲배드민턴 노영훈·보치아 차해준, 아시아유스패러게임 금메달

▲봅슬레이 4인승 김진수팀, 월드컵 3차 대회 두 번째 경기 14위